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의 근본 목적인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5월 24일 (토) 제 1484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 39회 정기총회

참 신앙체험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다!

CT, “천국은 진짜 있어요” 신드롬에 대한 성경적 수용 원리 소개



제 39회 KPCA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

총회장 노진걸 목사,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제 39회 정기총회가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엡5:1-14)란 주제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첫날 오후 2시 노진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대연 장로(부총회장) 기도, 김종훈 목사(서기) 성경봉독, 호성기 목사(총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호 목사는 갈라디아서 3:26-28절을 본문으로 “개인이나 단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력이나 스펙, 경력 갖고 되지 않는다. 모두가 다른 배경의 사람이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예수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가진 자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예수께 복종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성총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진걸 목사집례로 성찬식이 진행됐으며 직전총회장 강대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당일 오후 3시30분에 개최한 제 39회 총회 임원선거에서 △총회장 후보 노진걸 목사(홀러튼장로교회)를 박수호 추대했으며 △부총회장은 259표 중 137표를 얻은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가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

은 단독후보로 박순태 장로가 235표로 당선됐으며 그 외 신임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서기 김광철 목사(서노회) △부서기 안재욱 목사(수도노회) △회계 이지수 장로(서노회) △부회계 장영인 장로(캐나다동노회) △회록서기 정창문(뉴저지노회) △부회록서기 이형석(중남미노회) △영어회록서기 노희송 목사(토론토큰빛교회).

한편 14일과 15일 아침 경건회는 선교정책에 대한 바른 설정을 하기 위해 디아스포라로서의 선교 정책 특강시간을 가졌다.

첫날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는 ‘선교의 제 4물결’이란 제목으로 “개신교 선교역사적인 면에서 본 4번째 물결로서의 ‘선교의 제 4물결’, 성서신학적인 면(교회론)에서 본 4가지 물결로서의 ‘선교의 제 4물결’”에 관해 강의했다. 호 목사는 “21세기 바로 오늘 우리 앞으로 밀려오는 개신교 선교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신교 선교 역사의 4번째 물결과 그 물결을 이루는 4가지 물결인 디아스포라 중심선교, 지역교회 중심선



총회장 노진걸 목사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

교, 지체로서의 복음의 전문인 된 모든 중생한 전성도의 ‘선교사회중심선교’,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부터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신 지상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사, 성도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미주장신대학교 총장 서정운박사는 “교회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현재 노회 20개, 교회 462개, 목사 974명이 소속돼있다. <이성자 기자>

기독교 신앙은 내적 확신이나 이론적 논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체험적 실재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지평이 새로워지고, 십자가에서 폭발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체험과 통절한 죄인 의식을 통해서만 신앙의 세계는 열린다. 그런데 신앙체험이라는 것이 하도 신비해서 인간적인 종교체험과 구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진정한 신앙 체험과 그릇된 신앙체험은 언뜻 비슷해 보인다. 심지어 그릇된 신앙체험이 진정한 신앙체험보다 훨씬 강렬하고 극적이며 사로잡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릇된 신앙체험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세심한 분별이 필요하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이론적인 신앙

도 문제지만, 그릇된 체험에 사로잡혀 종교체험이라는 고립된 성에 갇혀 사는 신앙도 심각한 문제다. 진정한 신앙체험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인지를 참 신앙인들은 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최근 진정한 신앙 체험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바로 미국에서만 800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어린이부문 1위, 아마존 종합 50위 “3분”의 진정성 논란을 통해 (You Probably Love (or Hate) ‘Heaven Is For Real’ for All the Wrong Reasons: It’s not a travel guide. And Colton Burpo isn’t the first Christian to have an ecstatic experience),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한국어로 “3분”이라고 번역된 4살 소년 콜튼 부포가 본 천국의 경험을 다룬 책의 원제목은 “천국은 진짜 있어요”(Heaven is for Real: A Little Boy’s Astounding Story of His Trip to Heaven and Back)이다. 2010년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하는 바람에 이제는 영화로까지 제작돼 흥행 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책 내용은 이렇다: 가족 여행을 하던 중 4살 소년 콜튼 부포는 급성맹장염으로 인해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다. 맹장수술을 받고 회복된 후 몇 달 동안 그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국여행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콜튼만이 “임사 체험”을 통해 천국을 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3세기에 순교당한 사투루스(Saturus)는 자신이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황제 게타(Geta)의 생일 날, 야생짐승들에게 뜯기고 곧바로 검투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직전,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의 체험 기록은 아직까지도 가장 오래된 기독교 역사를 말



“천국은 진짜 있어요” 책 표지

해주는 분들 중의 하나로 보관돼 하고 있다(The Passion of St. Perpetua).

대부분의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사투루스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콜튼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 정도가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벌써 무려 8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려나갔고, 영화로도 정쟁한 헐리웃 대작들과 견주어 흥행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콜튼의 이야기는 전혀 새롭거나 독창적이지도

않은데도 화제의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학계에서 “임사 체험(near-death experience)” 환자들은 콜튼이 본 것처럼 어두운 터널과 순백의 빛, 새로워진 생명 등을 보며, 자신들의 몸에서 빠져나와 멀리서 자신들이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을 볼 수 있다는 임상학적 결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임사체험은 대두된다. <9면으로 계속>



2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3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걸으셨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요즘교 선교사(아틀란타 루한인교회)

피종진 목사 초청 제183차 해외성회

(183th Overseas Assembly)

2014년 5월 13일(화) ~ 28일(수)



☎ 010-5255-7777

- 13(화)~15(목) 미국(U.S.A) 필라델피아 글로벌한인장로교회(김경순 목사) ☎(215)782-1117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 16(금)~17(토) 미국(U.S.A) 뉴욕 서광교회(최고선 목사) ☎(718)786-6763
- 18(주) 오전 미국(U.S.A) 뉴욕 빛과소금교회(정순원 목사) ☎(347)513-1353
- 20(화) 저녁 캐나다(CANADA) 켈거리 목회자 사모세미나
장소: 캐나다 켈거리 열두샘교회(김홍식 목사) ☎(403)771-1441
- 21(수) 저녁 캐나다(CANADA) 켈거리중앙장로교회(고철주 목사) ☎(403)992-1004
- 22(목) 저녁 캐나다(CANADA) 켈거리벤엘교회(이재영 목사) ☎(403)263-0330
- 23(금) 저녁 캐나다(CANADA) 켈거리순복음중앙교회(김원호 목사) ☎(403)249-5056
- 25(주) 오전 캐나다(CANADA) 켈거리제일장로교회(강진우 목사) ☎(404)273-8665
- 25(주) 오후 캐나다(CANADA) 켈거리영락교회(송영배 목사) ☎(403)969-3659
- 26(월)~28(수) 미국(U.S.A) 필라델피아기독교방송국 개국 18주년 기념성회
- 26(월) 저녁 미국(U.S.A) 필라델피아 한빛성결교회(이대우 목사) ☎(215)927-0393
- 27(화)~28(수) 미국(U.S.A) 필라델피아 새한장로교회(고택원 목사) ☎(215)668-3599



시론

“교회란 얼마나 좋은 곳인가!”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이런저런 일과 사람들로 교회가 육을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삼단인지 관심도 없기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모두 한통속으로 여긴다. 또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믿으면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 때문에 고민한다. 미국 교회의 사정도 엇비슷한 것 같다. 미국 목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필립 안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Church, Why Bother?)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릴 때 남부 조지아 주의 대단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다. 철이 들면서 교회가 인생의 전부 아니라고 생각되어 교회를 등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막상 고통 받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어려웠다. 교회를 다녀도 다니지 않아도 어려움은 따랐는데 그래도 다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 시카고에 있는 라셀스트리트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에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있었다. 예배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고 재정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가 하면 교인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달라진 것은 주일이 기다려졌다는 것이다. 목사의 복음적인 설교에 늘 감동을 받았다. 그 교회 역시 문제들이 있고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예배시간에 감격이 있었고 세상을 향한 봉사과 세계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 때문에 저자는 그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교회에 월남전 참전군인이었던 흑인 아들프스라는 약간의 비정상적인 청년이 들어왔다. 아들프스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으로 분노의 눈빛을 띤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에 올 때 진정제를 먹고 와야 하는데 먹지 않고 교회에 온 날은 교회가 많은 애로를 겪었다. 예배당 제일 뒷좌석에 앉았다가 경중경중 좌석을 뛰어넘어 강대상까지 오는가 하면,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는 헤드폰을 끼고 흑인유행가를 들으면서 몸을 흔들기도 했다. 어느 날 기도시간에는 “이 교회의 모든 백인들에게 전멸을 내려주소서!”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한번은 성경공부반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기관총 한 자루만 있으면 여기 있는 놈들을 다 죽여버릴 텐데!”라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교인들 누구도 그의 난동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써 견뎌주더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정말 놀랄게도 그 교인들의 섬김과 보살핌 덕분에 아들프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본 저자가 외치는 말, “교회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오늘날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러나 교회만큼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한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질에 대해 가르쳐주는 본문이 주를 이룬 딤펀3장의 끝부분(14-16)에 의하면 평위의 교회가 아무리 문제투성이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비록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는 모든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를 다 뛰어넘는 가족애가 흐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암흑 그 자체로 소망 없이 살다가 소망 없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리더십저널,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과 자체위협 간 긴장해소방안 소개 (2)

메이슨의 예상대로 중요한 변화에는 항상 귀찮은 문제들이 수반됐다.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마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께 여쭙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마사 펜로즈의 가족은 메이슨이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클리프사이드에 출석해온 성실한 교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열음처럼 차가웠다. “청소년부 밴드 활동을 왜 폐지하신 거죠?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밴드 활동 덕분에 이제 겨우 관장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메이슨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부 밴드 활동을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스페인어 예배 찬양팀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부 밴드 연습 시간을 변경했을 뿐이죠.”

“그게 그거죠. 그렇게 이른 시간에 크리스가 밴드연습을 하러 가겠습니까? 애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인데요.”

“그 점은 정말 유감이에요, 마사.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페인어 예배 찬양팀이 그 시간밖

교인들끼리 담임목사 없이 지내는데 전혀 불만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메이슨이 제시하는 교회 부흥 계획을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 끔찍한 일이었다.

위성 교회는 본교회의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켰다. 클리프사이드 교회는 위성 교회의 성장을 위해 본 교회 시설을 작은 공간에서부터 넓은 강당까지 아낌없이 지원했다. 클리프사이드 교인 증가로 인해 교회확장이 필요했지만, 위성 교회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라 정작 본교회를 위한 여유가 없었다.



회에 혹시 일자리가 생기면 꼭 나한테 연락해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직장을 옮기는 편이 나을 것 같아.”

메이슨은 팀의 재무 관련 지식이 필요했다. 그리고 팀의 결혼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팀을 교회로 부르는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메이슨이 팀에게 클리프사이드의 행정목사직을 제안하자 팀은 굉장히 기뻐했다.

팀은 건축기금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 새로 부임한 행정목사가 재원

히 담임목사 직무실 문을 닫았다. “어떤 문제인데요?” 메이슨이 물었다. 히스패닉 신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히스패닉 교인들이 예배 후에 요리파티를 벌입니다. 가끔 교회 앞에서 하는데, 11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인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메이슨도 히스패닉 교인들의 요리파티에 자주 참석해왔는데, 즐겁게 먹고 떠들면서 친교를 나누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주말마다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도대체 요리파티가 왜 불만이 많을까? 같이 먹고 즐기면 될 텐데요.” “교회 앞이 너무 복잡거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려면 엄청난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게 불편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교인들도 있어요.”

메이슨은 “그런 문화가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래요. 다들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히스패닉 교인들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지체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가끔은 모든 교인이 모여서 통합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레한드로와 상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다. “참, 알레한드로와 카를로스의 복지혜택문제는 잘 해결되었나요?” 두 목사의 의료보험카드를 병원에서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장로 대니의 담당이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먼저 두 목사님이 시민권자인지 확인부터 해보아야죠.” “대니, 제가 보증하는데 정말 합법적인 이민자 맞아요. 처음 고용계약 맺을 때 다 확인한 사항이잖아요. 알레한드로는 본인이 힘들게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이민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철저해요. 그는 불법이민자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예요.”

“알아요, 알아요. 어쨌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메이슨은 그 문제를 그냥 대니에게 맡겨두기로 했다.

(다음호에 계속)

스페인어 회중 위성교회 지원에 마찰 새 행정목사에게 성전건축 자원 맡겨

에는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했거든요.” 청소년 다섯 명과 히스패닉 교인 전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였다. 메이슨은 별 고민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크리스는 클리프사이드교회를 목사님보다도 오래 다녔어요. 도대체 왜 크리스가 새로 들어온 히스패닉 교인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메이슨은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다.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청소년부 밴드 연습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네요.” 마사는 딱딱하게 쏘아붙이더니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문제로 고민할 틈도 없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위성 교회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클리프사이드는 그 작은 교회를 위해 50만 달러나 쏟아 부었지만, 부흥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처음 메이슨을 찾아왔던 열정적인 리더들과는 달리 교회 성장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교인들도 많았다. 상당수 교인들은 100명 남짓한

내키지는 않았지만 메이슨은 위성 교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했다. 마치 상처를 덮어두었던 오래된 밴드를 때어내는 기분이었다.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다.

위성 교회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위성 교회 교인들을 본교회로 흡수했다. 이제 늘어나는 본교회 교인들을 위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자금 확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메이슨은 새로운 안목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다. 사업 및 금융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지원을 받아 클리프사이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작정이었다.

메이슨은 대학교 친구인 티모시 언더우드를 떠올렸다. 팀은 훌륭한 의모와 뛰어난 재능을 겸비한 영리한 비즈니스맨이었다. 성전건축을 관리할 적임자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팀은 몇 달 전 메이슨에게 전화를 걸어와 직업을 바꿔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요즘 아내와 문제가 좀 있어. 내가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내도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나는 늘 목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너희 교

확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동안 메이슨은 목회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교인이 성전건축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프랭크는 불만이 컸다. 그는 당회 때마다 탄축을 걸었다. 그런 프랭크를 다독이며 회의를 잘 이끌어가는 팀과 대니가 메이슨은 매우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날 대니가 골치 아픈 소식을 듣고 왔다.

“목사님,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 때문인가요?” “아니요, 스페인어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대니가 일어나서 조용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걸으셨다!

CH, 예수께서 걸으신 1세기 팔레스타인 길 소개

5월을 맞아, 단기 선교 시즌이 돌아오면 반드시 공항에서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 바로 단체 옷을 입고 기념촬영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저기서는 손을 서로 맞잡고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인원점검하며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등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여름철 공항의 한 단면이다. 선교여행을 떠나는 입장에서는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흥분된 마음으로 인해 이런 모습이 좋게 보일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 시끄럽고 요란스러움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렘과 흥분이 놀랍게도 막상 선교현장에 도착하면 어느새 사라지게 된다고, 단기선교전문가들은 말한다. 바로 척박하고 열악한 잠자리와 먹거리에, 파송예배 때 받은 은혜와 감격이 눈깜짝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특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설명에서 처음 등장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신11:11).

팔레스타인의 면적은 미국 뉴저지 주 정도지만 지형이 워낙 험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기록되었듯이, 여행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 갔고,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새로운 왕을 경배하러 타국에서 왔고,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가나에 가셨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베다니에도 방문하셨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여행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온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여행 방법은 당연히 걸어서 가는 것이다. 걷는 속도는 날씨, 계절, 지세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루에 대략 30km 정도 걸을 수 있었다. 사도 행전은 베드로가 읍바에서 가이사라까지 64km를 이틀 만에 걸었다고 기록한다.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여행을 할 수 없었고, 걷는 것도 2000규빗(약 1Km) 이내로 제한되었다.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 차례 팔레스타인을 두루 걸어 다니셨다. 추측컨대 예수님은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해 세 번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을 것이다. 이 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름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략 120km 정도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최소한 2만 1600km를 걸었을 것이다. 공생애 동안에도, 여리고를 경유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260km를 걸어서 여행하셨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신 거리는 대략 총 2만 4000km에 이른다.

그러나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들은 위험과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19세기 말까지도 맹수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요르단 계곡을 따라갈 때엔 더욱 위험했다. 사자보다 시리아 곰이 더 위험했는데, 시리아 곰은 평소에는 운순하다가 갑자기 사나워진다. 그렇지만 시리아 곰도 1800년대 들어 팔레스타인에서 사라졌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처럼 외진 길에서는 강도들이 습격할 때가 자주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습격은 정치성을 드러낼 때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강도를 심자기행과 같은 중형으로 다스렸다.

한편 유대인들은 여행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지세와

할 사이에 증발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리카나 러시아, 알래스카와 같이 덥고 습하며, 춥고 냉한 지역에서 마실 물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어느새 옛사람의 모습만 등장하게 된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전역을 두루 다니셨다. 3년간의 공생애 기간을 통해 열심히 걸으셨다.

크리스천 히스토리(CH)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크리스천칼리지 신학과 교수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메릴린 하گی스(Marilyn Hargis)의 글을 통해, 예수께서 걸으신 1세기 팔레스타인을 설명해준다(On the Road: The inns and outs of travel in first-century Palestine). 바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걸어야 할 사명과 선교현장에서, 예수께서 일찍이 '길라잡이'가 되셨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다.



기후 탓이기도 하지만 지나는 객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묵을 곳을 마련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여행자를 대접하는 주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세 천사가 먼저 방문해 있었다. 아브라함은 먼저 도착한 손님 시중을 들어야 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나님께 말했다.

예루살렘이 순례자들로 넘쳐나는 절기 기간에도 유대인들은 가능한 더 많은 손님을 맞고 싶어 했다. 랍비 나단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했다. "자기 친구에게 '예루살렘에서 잠잘 곳을 찾지 못했

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예루살렘은 돈이 없어도 잠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다. 랍비 유다도 '돈 한 푼 없어도 침대와 이불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이 준비된 다락방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사유료를 지불했다는 기록은 없다). 또 회당 옆에는 여행객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숙박업소가 모두 짝 차서 방을 못 구한 사람들은 감람산에 마련한 천막에서 밤을 지낼 수 있었다.

주인이 손님을 환대하려면 골치 아픈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랍비들은 수세기에 걸쳐 객을 대접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누구를 먼저 대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고, 주인으로서 책임의 한계를 정했다. 또 주인과 객의 의무와 더불어 동등 떠날 생각을 안 하는 부담스러운 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의는 이방인들에게는 좀처럼 베푸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영용 숙소에 묵어야 했다.

결론으로, 비단처럼 부드러운 피부에 아귀고 힘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초상화 속의 예수님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길을 그토록 자주 오가셨던 분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험한 지역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 도전 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직분자란 가장 좋은 일을 가장 선두에서 헌신, 희생하며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다. 탁월한 직분자들로 인해 교회는 더욱 좋아진다!

(2면에서 계속)
최근에 우리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선출하였다. 추천된 후보진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당선되었고 낙선한 이들도 이해심이 깊어 선거를 준비하며 기도한 대로 교회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다.

당락여부를 떠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자 후보로 수락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칭찬해주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를 강조하였다. 기독교역사 2천

년 동안 교회 안팎에 문제는 항상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을 들어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희망의 내일을 여신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0편: 나의 마음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각 나라마다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같은 땅 위에서 살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져 있으며, 우리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별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갈3:29).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한곳으로 모으셔서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계획해두셨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왕,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생기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항상 파장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퍼지도록,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십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분노가 가득 살아있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음성,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의 생명의 음성, 유일한 진리의 음성, 거룩한 말씀, 그것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하는 자는 꼭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약1:4)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평정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씀은 근심, 불평, 사망의 생각들을 정복해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살전2:13)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로 나타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다양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다스려주시고, 근심과 불안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용솨음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향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생명의 파장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충만, 지혜의 충만, 은혜의 충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하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사망의 영향을 받고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중·고등학교 (6학년~12학년)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NJUCA 교사 일동-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NJ 크리스찬 아카데미 수양관도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 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2014~2015학년 신입, 편입생 모집 중

- 대상 : 6th ~ 12th
- 인원 :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 2014년 9월 5일
- 특징 :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I-20 발급

문의: (609)954-2900, (609)713-2121(영어)

www.njuca.org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참된 인도자

지역조차 희미한 오래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미국 동부에 극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교통편이 마비된 상황이었기에 기차도 천천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 아기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보라 속에 다른 기차역에 잘못 내릴까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두리번거리며 성애가 긴 침문을

뒤아가며 확인을 했습니다. 한 신사가 그 여인이 안전부절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길을 잘 압니다. 내리실 곳이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예정된 코스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내리려는 바로 전 정거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십시오. 부인"하고 신사가 친절히 말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

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신사는 부인에게 "이제 내리실 차례입니다. 부인 어서 내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안은 부인은 신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기차에게 내렸습니다. 기차가 다음 기차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다음 기차역에 다다르자 차장이 그 여인이 내리려고 했던 기차역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럼 그 정거장은 지나지 않았습니까?"하고 신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엔진에 고장이 생겨서 수리하는 동안 잠깐 섰었을 뿐입니다"하고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기차를 수리하느라 역과 역 사이에 멈췄을 때 내가 그 여인을 폭풍 속에 내리주게 해주었습니까?" 신사는 한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에게 아기를 안고 숨겨있는 부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인도로 어린 생명과 부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중하게 판

단하고 바르게 인도했더라면 아이와 부인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만으로 인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를 참담하게 합니다. '세월호' 직원들이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앞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고국의 가족들이 한숨과 고통으로 낯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안고 기뻐해야 할 아이들이 충격으로,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기쁨과 웃음이 가득해야 할 고국의 어버이들의 가슴엔 눈물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이 현실에 처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인 이장림이 '다미선교회'란 집단을 만들고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재산을 팔아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며 각지에 운동지를 마련하고 집단생활을 하며 휴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릴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장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그때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도 기성교회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재산을 팔아 다미선교회에 모두 헌납하게 하고 집단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수 돌산 외곽에 작은 집을 운동지로 정하고 휴거 때까지 먹을 양식과 빨감을 사들였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집단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먹고, 자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되어 여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지에 모여들었습니다. 경찰, 관내 공무원 등 공

직에 있던 분들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 그들의 주장대로 휴거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자해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라 긴장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물에 빠진다는데.... 장님이 장림을 인도했구먼..." 나의 가까운 지인도 그 당시 누님의 간청으로 집단에 들어가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지금도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참된 인도자란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하면서도 성실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많아져 우월한 우리들에게 밝은 기쁨이 되길 기대합니다.

푸 / 른 / 초 / 장

김종덕 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인간은 날마다 멸망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날마다 도처에서 멸망의 슬픈 곡성이 들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 멸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이시려고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회생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그 멸망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둘째는 "이처럼"이란 말씀입니다. "이처럼"은 '이만큼'이라는 의

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당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사는 1등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부모를 둔 자식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의 98%는 가난한 집,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고 믿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깨뜨려 줄 수

있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원수로 구나"하고 한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16 말씀으로 깨뜨려 부수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부모를 둔 자식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의 98%는 가난한 집,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고 믿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깨뜨려 줄 수

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잘 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양복강가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년전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막가파가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목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육을 먹고, 잡혀서 도 얼굴하나 찡그리지 않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그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간수까지도 피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 집사님이 그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100통째가 배달될 때까지 편지 반입도 못하게 했던 그가 드디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형제까지도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그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한 한 여 집사님의 믿음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인한 살인자였던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이 좋은 여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사형 당하기 전까지 교도소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기증하였고 장기도 남을 위해 기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며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멸망치 않는 믿음 (요3:16)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제물을 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셨다"라는 단어는 "보냈다"가 아니라 "내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

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 달라고 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울부짖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왜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아들을 보시며 왜 당장 응답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은 쓸모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를 통해 당신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멸망"이라는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완벽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이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 된 우리의 인생을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병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멸망치 않습니다. 부자 부모와 상관없이 잘됩니다. 자녀들이 과외를 안해도 멸망치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는 말을 믿고 묶여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절대 멸망치 않습니다. 세상 경험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원수로 구나"하고 한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16 말씀으로 깨뜨려 부수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부모를 둔 자식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의 98%는 가난한 집, 결혼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고 믿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깨뜨려 줄 수

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잘 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양복강가의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년전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막가파가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목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육을 먹고, 잡혀서 도 얼굴하나 찡그리지 않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그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간수까지도 피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수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 집사님이 그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100통째가 배달될 때까지 편지 반입도 못하게 했던 그가 드디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형제까지도 면회 한 번 오지 않는 그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한 한 여 집사님의 믿음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인한 살인자였던 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이 좋은 여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게 되고 사형 당하기 전까지 교도소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기증하였고 장기도 남을 위해 기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며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역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성경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사: 라홍채 목사 ○장소: 뉴욕 제자들교회 교육관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8:30 ○전화: 718-224-1993, 917-968-1024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라홍채 목사



라홍채 목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82. 3-1988. 2)
미국 '덴버' 석유회사에서 13년간 근무(1972. 5)
미국 추스톤 신학교(1986. 7)
미국 배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2. 6)
미국 배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1993. 6)
미국 배다니 신학교 신학박사(D.D) (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민회교회 설립(1996. 9)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2014. 현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관** 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심판의 때가 곧 도둑 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를 통하여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제자들교회 주소 :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11363

- ① 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약 편, 신약 편
- ③ 칠십이레
-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 ⑤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 ⑥ 다니엘
- ⑦ ⑧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구입처 뉴욕제자들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선거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My Voice, My Choice, My Vote! 라는 글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시민들은 자신의 투표하러가 미국을 캘리포니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무슬림들도 미국 안에서 정치인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투표율은 대단합니다. 올해 2014년의 선거는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선거입니다. 아시아시우 우리 가정, 신앙, 자녀교육, 심지어는 오바마케어 등을 통한 프라이버시까지 IRS에서 속속히 다 속박 당하게 하는 등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송두리 채 정치인들의 손에서 좌우

표하는 것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미 민주당은 정당에 동성애와 낙태를 지지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친동성애(SB48)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AB1266 같은 법안을 수없이 많이 만들고 결혼을 남녀만의 것으로 정의한 Prop. 8을 무효화시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당에 확실히 적혀있으니까요. 5월 27일은 우편투표용지 신청 마감일입니다. 6월3일이 예비선거일입니다. 혹시 우편으로 투표하실 분들은 오늘 꼭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부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편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분들은 해당 항목을 작성해 선거일인 6월 3

소속의 제리 브라운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뽑혀야 할까요? 18세 이상 된 미국 시민권자는 다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18세가 됐다면 꼭 선거에 함께 참여시켜주세요. 카운티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면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부터 오늘 속히 하기를 바랍니다. 2개 투표발의안 현재 캘리포니아에 2가지 발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발의안 41과 발의안 42입니다. 참고로 '발의안'이란 투표를 위해 대중에게 제출되는 법안입니다.

역군인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지원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주정부가 공채발행과 관련된 추가지출을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발의안 42는 공공기록물, 공개회의에 대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문제입니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이라는 명칭의 주법은 지방정부가 공문서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상환합니다. 또한, 브라운법이라는 명칭의 주법은 지방정부가 공공회의를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2개 투표발의안 : 41-퇴역군인 주택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

42-공공기록물, 공개회의에 대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했음을 지난 8년 동안 톡톡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에 있는 예비 선거, 또한 총대선 모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빌 브라이트박사는 5 Duties of Christian Citizens 즉,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막중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둘째는 유권자 등록하라, 셋째는 정보를 꼭 취하라, 넷째는 참여하라, 다섯 번째는 꼭 투표하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투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만들지만 그 정치인들을 뽑는 것은 국민에게 국민들이 국가를 만들어 가는 막중한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더욱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한 정치세미나에서 한인 2세 주류정치인은 "낙서를 지우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민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일상에서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은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투표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지를 알고 투

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선거하는 날 짜를 놓쳤으면 그냥 선거일에 카운티에 가서 직접 투표하고 오면 됩니다. 가장 기억하실 날이 바로 예비선거일인 6월 3일입니다. 그날 선거하는 분들은 각 카운티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와 오후 8시 사이에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또 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선거일이 되기 전에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등록을 했으나 해당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투표용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 때 저희가 뽑는 사람들은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회계감사원장, 재무국장, 법무부장관, 보험국장, 공교육감 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권으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주지사입니다. 현재 주시사가 제리 브라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핵관을 재정립하고, 우리 자녀들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법안에 결정적으로 다 서명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

발의안 41은 퇴역군인 주택 및 노숙자 방지를 위한 공채입니다. 현재 상환만 설명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90만 명의 퇴역군인 중 일부에게 저리 용자를 제공해 단독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저소득 주민들이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지만 저소득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발의안 41이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저소득 또는 무주택 퇴역군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택건설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하기 위해 6억 달러의 주 공채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저가 다세대 주택건설에 사용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는 향후 15년간 6억 달러의 공채원금과 약1.5억 달러의 이자를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안 41에 대한 찬성 의견: 이 발의안은 수천 명의 저소득 무주택 퇴역군인들에게 필요한 주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41에 대한 반대 의견: 퇴

발의안 42가 통과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 주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비용은 지방정부로 전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공기록물법과 브라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포함됩니다. 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전체 지방정부에 상환하지 않으므로써 연간 수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책임은 각 지방정부로 전가됩니다. 지방정부들은 연간 비용이 평균적으로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정부의 규모와 문서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의안 42에 대한 찬성 의견: 일반대중이 개인적인 정보를 열람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발의안 42에 대한 반대 의견: 주의회의 의원들은 여전히 이러한 법률을 지방정부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러한 법률들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방정부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을 경우를 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하는지요? 목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토렌스의 권 집사

A: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뜻대로 되지 않아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Encouragement)의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공연을 마치고 귀국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이 시작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소프라노 가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다리던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돼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신인가수 한 분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매우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자녀인생 바뀐

실망했고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신인가수가 나와서 콘절을 하며 노래를 감동적으로 잘 불렀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난 후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극장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신인가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청중들은 싸늘한 시선이 따뜻하게 변하면서 하나 둘씩 다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신인가수가 바로 그 유명한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청중들의 분위기를 바꾸어 아버지를 위한 성악가로 데뷔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꼭 자녀들에게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 당한 지체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지체에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한마디 말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경제 중에서도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네 목소리는 뒷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그 소년은 크게 실망하고 눈물을 푼듯 흘렸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아들이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성악공부를 하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 너의 뒤에는 항상 엄마가 있다" 이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연습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성악가였던 "앙리코 카루소"였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시절에 성적표에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얼굴하나 찡그리지 않고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지 않으면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4회 정기세미나

주제 : "청교도와 설교"

급변하는 21세기에도 청교도가 필요한가?

무엇이든 뜯어고치는 것이 갱신일까? 청교도는, 초대교회의 원리에 충실하였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을 토대로 개혁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삶을 실제로 살았던 무리이자 운동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 오히려 혼탁한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범이었기에 그들의 삶과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은 청교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청교도와 설교"라는 주제로 1685년에 세운 발코니식 풀밭이 있는 가까운 옛 화란교회(Dutch Reformed Church)도 보고 발표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외치느라 개교회주의로 흘러간 격려있는 틈을 타서 WCC나 이단이 불건전한 연합을 크게 외치는 이때에 건전한 교회들의 연합이 오히려 절실합니다.

- 일시: 2014년 6월14일(토) (10:00 AM-4:00 PM)
● 장소: (1) 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 (in Territown)
430 North Broadway, Sleepy Hollow, NY 10591
(2) 은혜와 사랑의 교회
181 Harrison Ave., Harrison, NY 10528
● 대상: 목회자 및 전도사, 신학생
● 회비: \$20 (교재비) - 차비, 식비: 무료
● 일정: 10:00 AM 공영주차장(우리은행앞) - 11:00 AM - 예배 및 투어 점심, 이동 - 1:00 PM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세미나 3:00 PM 뉴욕으로 출발 4:00 PM 도착

Table with 2 columns: Topic and Speaker. Topics include Calvin's Theology, Richard Baxter's Preaching, Jonathan Edwards' Theology, and Puritan Theology. Speakers include Pastor Yoon Seung-tae and others.

연락처: 청교도복음연구회 총무 이창중목사
(917) 399-6754, (718) 939-8278, (917) 251-3039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러시아의 다르긴(DARGHINIAN)



다르긴족은 자신들을 다르과(Darg-w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소련의 자치공화국의 하나였고 지금은 러시아의 일부인 북부 코카서스에 위치한 다게스탄의 다수 종족이다. 이 지역 내에서 다르긴족은 인구의 약 15%를 차지

한다. 35만명에 달하는 다르긴족은 수 세기 동안 카스피해 서부 해안의 작은 언덕, 산, 고산지대에 거주해왔다. 구소련 시대 동안 일부 다르긴인들은 저지대로 이주해 농업과 산업에 종사했다.

다르긴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로, 여러 세기 동안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흉노족에 의해, 다음은 투르크족, 몽골족, 페르시아인, 19세기에는 러시아인에 의해 침략을 당했다. 사회적으로 또 식민지적 억압을 당하면서 다르긴족은 러시아 권력에 반

란을 일으키고 언론 저항을 자주 하는 가장 활동적인 민족들 중 하나였다.

삶의 모습

현대의 다르긴인들은 두 세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사는 핵가족 형태로 생활한다. 일련의 가족들이 모여 "투흠(tukhum)"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이것은 공통 남자조상으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모인 관련 가족의 집단이다. 투흠 안에서 결혼이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여자는 17세, 남자는 25세이다.

전통적으로 다르긴족은 생계를 위해 주로 가축사육에 의존했지만 오늘날에는 농업이 주요 수입원이다. 언덕과 산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경작방법과 기술도 저지대와 고지대 등 다양하다. 저지대 농부

들은 주로 밀을 생산하고 고지대 농부들은 보리, 라이, 옥수수, 콩류에 의존한다. 농사는 저지대에서는 남자가, 고지대에서는 여자가 한다. 저지대 농부들은 넓은 밭에서 금속 쟁기를 사용하지만 고지대 농부들은 좁은 밭에서 보다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한다.

다르긴인들의 주식은 곡물, 낙농품, 육류, 야채, 과일, 푸른 채소, 쌀, 기류, 소련 통치 동안 러시아와 유럽의 요리가 더 인기가 있게 됐으며, 통조림과 상점에서 산 즉석식품의 사용이 증가했다.

다르긴인들의 가장 발달된 공예는 양모 생산품, 금속제품, 목공예품이다. 가죽, 도기, 벽걸이 용단이 또한 중요한 생산물이다. 다르긴인들은 무기 제조에 솜씨가 있는 것으로 특히 알려져 있다.

신앙

체첸-잉구쉬 공화국과 함께 다게스탄은 구소련의 보수적인 이슬람의 가장 강한 요새 중 하나다. 18세기 이래 이슬람은 다르긴인들의 지배적인 종교가 됐다. 과거 소련 정부가 이슬람 사원(mosque)과 이슬람 학교를 폐쇄하고 종교적 출판물을 금지시켜서 종교적 신앙을 꺾으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심지어 증가하고 있다. 시골에는 무슬림 성인들의 무덤과 사당이 흩어져있어서 순례지와 기도처로서 사용된다.

다르긴족의 이슬람 관행은 매우 혼합주의적으로, 이슬람 이전 이교신앙의 중요한 유물들이 섞여 있다. 농업력(曆), 의식, 가족의 제사는 이러한 이교의 영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후반까지 현대의료서비스가 소개되기 이전에 다르긴족의 의학은 "하킴(khakim)"이라는 민간요법사가 치료하는 민간요법과 동양의술의 복합이었는데, 그에 의존해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슬람의 증가하는 인구와 무슬림 정치인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탓에 수천개의 이슬람 사원과 수백개의 이슬람학교가 아직도 러시아연합에 일부이기도 한 무슬림 지역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성경과 영화 "예수"가 그들의 언어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르긴족은 실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남아시아 세르파족 언어 성경번역 완성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남아시아 세르파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공식적으로 성경 번역이 끝난 14번째 언어다. 현재도 54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성경번역학회(GBT선교회)는 지난 1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출에서 '세르파족 언어로 성경번역을 완성한 데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르파족 선교는 1967년부터 시작됐다. 호주 출신의 질스트라 선교사 부부가 처음으로 현지를 찾았고, 미국 출신의 고든 선교사 가족이 1968년 두 번째로 사역을 시작했다. 또 독일 출신의 세틸린드라이어 선교사 가족이 1970년 세 번째로 정착했고 마가복음을 초역하던 중 강제 추방당했다.

네 번째는 1984년 노르웨이 출신의 웬들 선교사 부부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세르파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상룡·이해련 선교사 부부가 1988년 이곳을 찾았고, 지금까지 세르파족의 언어·문화를 배우며 성경을 번역했다. 세르파족 언어로 된 성경은 지난달 출판됐다.

이 선교사는 성경관대 영문과를 나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8년 남아시아 세르파족 사역을 시작했다. 이 선교사는 "당장 실적이 보이지 않는 일을 수십 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며 "하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항상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납치된 친구들 무사 귀환 위해 매일 기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잔혹한 테러를 겪고 살아남은 나이지리아 기독교 소녀가 최근 같은 단체에 납치된 또래 여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



과 기도를 호소했다.

데보라 피터스(15)는 지난 13일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목회자 아버지와 남동생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일을 증언하며 "납치된 여학생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다.

피터스는 12세이던 2011년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 치복시의 집에서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았다. 치복시는 지난달 14일 보코하람이 학교 기숙사를 급습해 여학생 270여명을 납치한 곳이다. 보코하람의 무장대원 3명은 오전 7시20분쯤 대문을 두드리며 피터스의 아버지를 찾았다. 집안으로 들어닥친 이들은 목욕하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린 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협박했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가슴에 총 세 발을 쏘았다. 피터스는 "아버지는 '예수'라고 외치고 바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무장대원들은 바로 남동생에게 다가 총격을 가했다. 이후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남동생의 입에 총구를 겨눴다. 피터스는 "보코하람은 남동생이 아버지처럼 목사가 될 수 있다며 확인사살까지 했다"고 회고했다. 죽음을 면했지만 하루 넘게 가족의 시체 속에서 묶여있던 피터스는 외상후트레스로 한 달 넘게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머니는 사건 당일 마을을 떠나 있어 다치지 않았지만 큰 충격에 빠졌다.

피터스의 가족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납치된 여학생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스는 "많은 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며 "그 누구도 보코하람의 무자비한 테러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피터스는 박해 기독교인을 위한 단체 '주빌리 캠페인'의 도움으로 미국 버지니아주로 건너가 현재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신앙을 키우며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있다.

수많은 보코하람 피해자를 상담한 국제 인권변호사 엠마뉴엘 오지브는 "보코하람은 알카에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제 테러집단으로 성장해 기독교인을 말살하려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독교인들이 언제까지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출신미국기독교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세계 각국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윌커슨 목사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 소망과 행복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미 타임스 스퀘어교회 설립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는 "우리가 더 이상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 혼란과 두려움만 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단언한다.



여호사밧왕은 세 나라의 군대가 유다를 포위할 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대하20:11-12). "이제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셨다.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더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해준다고 본다.

저자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는 것을 성경 속 인물과 목회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세 차례나 부인했고, 바울은 동족을 가혹하게 핍박했다. 사무엘은 아각을 숨지게 했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했고 그 부하를 암살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저자 윌커슨 목사는 1986년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타임스스퀘어교회를 시작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노숙인들, 마약중독자들과 함께 처음 예배를 드렸다. 놀랍게 부흥하면서 극장을 매입, 예배당으로 개조했다. 뮤지컬 극장인 줄 알고 들어온 관광객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는 곳이다.

팻 로버트슨과 켄 함, '젊은 지구론' 공방

미국 보수적 기독교 목사이며 기독교방송(CBN)의 설립자이자 진행자인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Young Earth Creationists: 창

세기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구의 나이는 6,000-10,000년이고, 최초의 6일 동안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들)를 "귀머거리이며 병어리고 소경"이라 한 데 대해, 창조박물관(Creation Museum)의 대표 켄 함(Ken Ham) 박사는 "로버트슨이 '오늘날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성경을 절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켄 함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팻 로버트슨은 오늘날 교인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썼다. 그는 "AiG(Answers in Genesis, 창조론 연구단체)가 교회와 문화를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세우는데 가장 주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팻 로버트슨은 우스꽝스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켰다"고 했다.

로버트슨은 13일 자신의 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단지 6천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머거리, 병어리, 소경임이 분명하다"며 자신은 젊은 지구 창조론자가 아님을 분명했다. 로버트슨은 지구의 연대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오래됐음을 보여주는 화석자료들을 제시하며, "여기 있는 모든 게 6천년 안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문자적으로 믿는 함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는 주요 크리스천 TV 프로그램 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도록 돕는다"며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그에게 우호적"이라고 썼다. 그는 "팻 로버트슨, 당신은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께 6천년 전 6일 만에 우주 창조할 방법이 없었다고 믿는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면, 그분은 6초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릎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과 로버트슨은 같은 주제로 이전에도 수차례 충돌했다. 지난 2월 '사이언스 가이'로 잘 알려진 진화론자 빌 나이(Bill Nye)와 함이 토론을 벌이기 전, 로버트슨은 젊은 지구 창조론을 거창해 비판했다. 이에 함은 로버트슨을 향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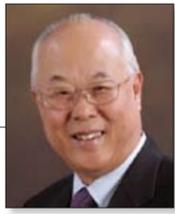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2)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정치적인 열매

카이퍼의 일생은 신학자로 또는 설교자로서의 삶이기도 했지만 정치가의 삶이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도 다르거니와 입장도 다르다. 카이퍼는 언제나 절대 추종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절대 반대자도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평생 주장했던 대로 중생자와 비중생자와의 대결, 인본주의자와 칼빈주의의 대결에서 보듯이 두 사이는 어쩔 수 없는 대립관계(Antithesis)가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적 열매도 결국 서로 엇갈린 평가가 있게 마련이다.

어찌됐던 그는 19세기 말 인본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에 대결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 곧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인성과 우주와 세계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준 인물이다. 그래서 정치가로 그의 삶은 화란의 반세기의 역사의 중심에 있고 기독교적 정치가 무엇이든,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무엇이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몸으로 실천했다. 결국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과 정치적 이념은 그의 후계자인 콜라인 박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그러므로 콜라인의 정치적 이념은 바로 카이퍼의 정치사상의 요약이

며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즉 콜라인 박사의 정치원리를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칼빈주의자로서 칼

즉 그가 말하는 공정성이란 투표에서 남녀의 차별이나 직업의 귀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콜라인의 입장을 카이퍼의 사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둘째로, 콜라인은 권력행사 방식에 있어서 민주주의 체제와 독재체제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좋지만 자유를 발미삼아 통치자와 피통치자와의 역할을 혼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구호로 민중들이 세력을 모아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불법으로 단체를 만들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정부 전복을 꾀하는 태도가 문제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재자의 파시즘과 같은 권력 집중체제도 반대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기능과 소명(召命)을 하

면 그는 복지정책을 너무 잘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자생력을 약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러한 입장도 카이퍼의 집권당시 부터 반혁명당이 견지해온 일관된 사상이었다.

넷째로, 콜라인은 사회보험제도를 권장했다.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찬성하지만 증가 보다는 점차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개인의 창의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의 입장과 같다. 그러나 보험은 이런 창의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한

나뉘게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콜라인의 주장은 권력의 본질적인 문제가 정치 형태라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정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콜라인은 카이퍼와 같이 하나님 중심 시각에서 정치원리를 보고 있다.

셋째로, 콜라인은 권력의 집중보다는 권력의 분산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와 가정의 구성에 있어서 또 작은 공동체들과 지방자치 행정구역으로 권력이 분산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콜라인은 권력을 사용할 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

다고 했다.

다섯째로, 콜라인은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별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전제 했다. 아울러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나라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보호 무역은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통용되는 일반적인 화폐단위는 금 본위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금이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각 민족 간의 역사와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함으로써

은 우호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각 민족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콜라인 박사는 국제연맹을 지지하였다.

카이퍼의 정치적 후계자인 콜라인 수상의 정책기조와 정당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정치관에 기초한 것이며 그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를 따라서 칼빈주의 정치가가 된 콜라인은 광대한 조직체인 국가나 그것을 운영하는 정치 체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主)되심을 선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로 이러한 국가 경영과 국가의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콜라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칼빈주의적 정치활동에 길을 열어놓는 공헌을 했다고 본다. 이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스승인 카이퍼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

후계자 콜라인의 정치이념, 카이퍼 정치사상의 열매 권력분산, 사회보험제도, 자유무역 주장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보다 민족주의를 지지했다. 그러나 각 민족



가정사역 칼럼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조국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어둡고 비통하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모습과 미숙한 대처방식으로 인해 탄식이 절로 나왔다. 세계 제1의 선박건조 국가요, 수십만톤의 배들을 건조하는 나라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후진국 형의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게 마련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고로부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교통사고, 직장문제로 인해, 혹은 이사나 전근, 특히 원치 않던 실직이나 원치 않던 조기 퇴직 등은 거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다. 의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질병을 가져오거나 키우는 최대의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건강의 적인 션

이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던 배우자와의 사별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100)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1-2년 사이에 많이 겹쳐서 쌓이게 되면(스트레스지수 350이상), 우리 몸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식욕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며, 수면장애와 함께 긴장감이 높아져서 쉽게 피곤하거나 집중이 어려워 학업이나 업무 능력에도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혹은 심리적 압박감이라 볼 수 있는데,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사실이다.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스트레스장애)는 군복무 후 재향군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특히 전쟁에 참가해서 참혹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을 정도로 충격의 여파가 심하다. 얼마 전 우리 집에 한 청년이 방 한칸을 렌트해서 이사를 들어왔는데, 이라크 참전용사였다. 한동안 우리와 함께 잘 지내던 청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방을 옮겼는데, 나중에 전해들은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디즈니랜드에서 밤마다 진행되는 불꽃놀이 때문이었다. 불꽃이 쏘아 올려지는 첫 소음에서부터 끝나는 순간까

지 거의 15분을 약품 같은 전시 상황이 재현되어 날마다 힘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집 분위기가 좋아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버티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비단 그 청년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충격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힘들었던 상황은 끝났지만 마음 속 한켠에 저장된 영상과 예민했던 감정들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내 무의식에 저장되었던 영상과 소리, 두려운 느낌이 그대로 재현되어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로, 만약 상담이 어려운 경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이들과 함께 지지그룹(Support Group)을 이루어, 힘들었던 경험을 정상적인 일상에서 옛 얘기를 나누며 지난 과거의 사실을 지나간 과거로 프로세싱(Processing)을 하는 방법, 셋째로, 만약 혼자서 힘든 상황을 견뎌야만 한다면, 이전의 충격적 사건을 중심으로 회상록(회고록)을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때 경험했던 놀라움이나 슬픔, 두려움이나 괴로운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좋다. 물론 누군가에게 자신의 충격적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5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경민, 김용원, 김은숙, 김정민, 김재상, 박수진, 서옥석, 소유영, 임은아
- 기독교 교육학(M.R.E) 신주희
- 선교학석사(M. Miss) 김명자, 김필현, 이순옥, 황혜옥
- 여교역학(Diploma) 김혜경, 정경숙
- 신학사 (B. Th) 고엘림, 조혜진

일 시: 주후 2014년 6월 2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준 박사
이사장 이용걸 박사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88. 창조론의 기초(38) 언어집단의 유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후에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창17:26).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살든지 한 집안 사람들이란 말이다. 이 엄청난 선언이 사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다. 왜 언제 어떻게 언어와 피부가 다른 민족과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먼저 인류가 한 혈통 즉 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증인(하나님)

경 기록에 의하면 노아가 BC 2950년에 태어났다. 온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노아의 자손들이다.

사람의 Y염색체를 분석하거나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분석하면 현 인류는 각각 한 남자의 후손이며 한 여자의 후손이란 결론이 나온다. 성경과 일치하는 듯한 이 정보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Y염색체 아담은 120,000~156,000년 전에 생존했고,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140,000~200,000

터를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속도가 핵 DNA인 Y 염색체 돌연변이 속도보다 빠른 사실에 대해서도 눈감아 버리게 했다. 핵 DNA는 미토콘드리아 DNA보다 돌연변이 속도가 낮기 때문에 Y염색체 아담이 더 최근에 존재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더 오래된 것처럼 계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 시간 계산도 돌연변이 속도가 언제나 동일했다는 가정이 필요하므로 믿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최근에 알려진 빠른 돌연변이 속도는 인류의 기원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기원에 비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최근 예상보다 훨씬 빠른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 속도를 적용한 결과 인류의 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6000년 전으로 계산되어 진화론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실제 돌연변이 속도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써있는 돌연변이 속도보다 10배나 빠르다. 만약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 10~20만년 동안 돌연변이가 진행되어 그것이 우리 염색체에 축적되었다면 인류는 각종 유전병으로 가득 해야 한다. 또, 유인원으로부터 600만년 전부터 돌연변이가 쌓였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 전에 멸종했을 것이다.

을 섞어서 언어를 바꾸었다. 문법을 다르게 하고 단어의 음소들을 뒤섞어 서로의 언어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오직 가족들끼리만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어 인류는 함께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세상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이 새로 정착하여 이룬 공동체가 나라며 민족이며 문명들이다.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무렵에 70개가 넘는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흩어진 가족들은 더욱 갈라져 현재 69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어들을 어족으로 묶으면 약 90여개가 된다고 한다. 언어학자들이 구분한 완전히 다른 언어인 어족의 수와 바벨사건 무렵 성경에 기록된 가정들의 수가 비슷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도 성경보다 더 논리적이고 근거있는 설명은 없다.

세상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데이터들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과 과정은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은 현재 상태만 연구할 수 있지 과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세상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증인인 하나님의 증언(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 아쉬운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근거 없는 신앙을 갖게 되고 나약한 크리스천, 세상 사람과 구별 없는 평범한 크리스천이 되어 자기 만들어 낸 하나님을 믿으며 죽어가고 있다.

인종문제와 종교와 국가분쟁 가운데 끼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말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말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렘8:21-22).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에서, 주인(Lord)에게 자기를 맡겨 생명을 얻고 화복하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naver.com

언어기원도 성경보다 더 논리적이고 근거있는 설명은 없어 바벨사건 당시 70여 가족(성경), 언어학자들 어족 90개로

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까? 적어도 세 가지의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인간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 결과, 인구 모델링을 통한 가계 연구, 미토콘드리아와 Y 염색체의 DNA 분석.

2003년에 발표된 인간유전자지도(Human genome project) 사업 결과,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DNA는 개인 차이가 있지만 한 인종뿐임이 밝혀졌다. 당시에는 개인 차이가 약 0.1%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전체 DNA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보다는 더 큰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인류가 하나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 과학지 Nature(9월30일자)에 실린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인류의 가계는 169세대이며 5,0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인류가 남겨 놓은 유물이나 유적이나 기록들을 보아도 이 연구 결과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피부색과 언어에 상관없이 BC3000년 이전에 살았고 자녀를 두었던 모든 사람들은 현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한다. 또, 인류의 시작이 5000년 전 즉 BC 3000년이라고 했는데 성



언어 집단의 유래 바벨탑 사건
바벨의 반역 사건은 언어 혼잡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파괴 사건이며 민족과 국가가 생겨 난 원인이다.

년 전에 존재했다고 하기 때문이다(세상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기원 10만~20만년은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성경은 약 6000년 전에 두 사람이 같은 날 창조되어 함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속 과학자들은 Y 염색체 아담과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 두 사람을 같은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로만 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해야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세계관의 차이는 똑 같은 데이

많은 데이터들이 인류는 오래지 않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며 한 혈통, 한 가족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인종이 되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성경은 노아홍수 후 약 100년 후에 바벨에서의 집단적인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family)에 다른 언어를 갖도록 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언어를 혼합하게 즉 기존의 언어 요소들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외동아이 키우는 부모의 10계명

- 외로울 것이라는 걱정을 버리고 당당하게 키우세요.**
친형제자매가 없어도 이웃사촌 형제는 훌륭한 벗이 됩니다. 아이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애써 친구 노릇까지 하는 부모의 눈물 어린 수고도 그만하시고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넉넉하게 대하세요. 부모가 밝은 태도로 대하면 자녀도 밝은 아이가 됩니다. 근심으로 바라보시면 아이도 걱정이 늘게 마련이지요.
- 혼자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부모가 함께 놀아준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혼자 놀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외동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혼자서 계획해보고 실천해보고 완성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이랍니다.
- 너무 많은 기대로 부담을 주지 마세요.**
하나뿐인 자녀에게 부모 인생을 송두리째 걸지 마시길. 많은 것들을 대신해주는 부모, 그 대신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모들에게 외동이는 지친답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부모, 원조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세요.
- 실패를 경험시켜주세요.**
무조건 다 이겨야 하고 다 성취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리가 외동 아이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이 됩니다. 실패하는 경험, 좌절을 극복해보는 경험들이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 세상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키우다보면 아이는 경쟁과 타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힘은 때로는 협상하고 타협도 하고 서로 원원하는 태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 자녀 싸움에 끼지 마세요.**
친구와 싸우고 오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모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싸움도 해보고 갈등을 겪은 다음 어떻게 타협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 자녀의 친구들을 관찰하세요.**
내 아이만 보고 자식을 키우면 편협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꼭 앞서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세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꼭 잘해야 하고 꼭 이겨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해보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조급해 하지 마세요.**
형제가 없는 외동아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늘 우수한 또래 친구와 비교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비교하거나 조급해하는 부모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 주세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고 부모가 형제가 될 수는 없지요. 부모가 누나처럼 형처럼 되고 친구가 되는 관계설정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할수록 예절 있는 자녀로 키워주세요. 좋은 성품의 자녀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만 아는 버릇없는 태도로는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성품을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행복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충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목사 CBS TV 특강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 다시보기 www.cbs.co.kr/tv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ssolomon
- 트위터 www.twitter.com/cbssolomon
- 유튜브 www.youtube.com/cbssolomontv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일 ~ 15일	우리교회(김영목사)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0일 ~ 12일	침례중앙교회(김형우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2013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일 ~ 5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6일 ~ 8일	현광교회(차은효목사)	27일 ~ 30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1일 ~ 13일	침례중앙교회(김형우목사)		

2

2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4일 ~ 7일	GST 30th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3

3일 ~ 6일	침례교회(박여호수사목사)
10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신남교회(김봉현목사)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7일 ~ 9일	월평동교회(조은일목사)
1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홍인 신세계교회(문용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한재민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5

3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광명수복교회(홍영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3일 ~ 5일	여우교회(류병희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가나안교회 (김익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7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5일	인천 대은교회(전명구목사)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8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일	산곡기도원(한기채목사)
4일	청운교회(강석목사)
5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

1일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사)
2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새일교회(이정수목사)

4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김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를 성회(최만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0

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1일 ~ 2일	새일교회(이정수목사)
5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7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남서중앙교회(여현근목사)

11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 (지동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암교회(김종열목사)

11

4일 ~ 6일	일성교회(원성목사)
10일	청대교회(최홍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0일	대전 성남교회(정만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

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5일 ~ 18일	신광교회(김성민목사)
22일	인천가나안교회(정영목사)

12

23일 ~ 2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9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 밤(GST)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목회서신

편(便)함과 불편(不便)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문명의 이기(利器)인 첨단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참으로 편한 세상을 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IT 제품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무엇이든 알아볼 수 있고, 무료로 카톡(KakaoTalk)을 통해 전세계 어디든 누구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멀티미디어인 교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Social Network Site), 즉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적 관계망이나 교제적 관계를 구축해주고 보여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을 말하는데,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등을 통해 이용자는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신상(성별, 연령, 직업)과 취향, 이데올로기, 종교 등의 의견과 정보를 전제 또는 선택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제도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의 줄임말로, 라틴어의 '언제 어디서나 있는'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모든 물리공간(도로, 다리, 터널, 빌딩 등)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를 넣어 모든 사물과 대상이 가능화되고, 전

자공간에 연결돼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집, 회사, 사업장, 어디든 실시간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전기, 가스 등을 원격조종할 수도 있는 기막히게 편리한 시스템이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SF: Science Fiction)이 아니라 실제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똑같은 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편함과 축복은 커녕 핍박, 고난, 조롱, 업신여김의 불편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크나큰 모순이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의 불편함 가운데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탄 마귀는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 첫째는 너무 바쁘게 하므로,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둘째는 너무 편하게 하여 게으름과 나태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말세에 세상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편함이 좋다고 졸며, 게으르고, 나태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잠6:10-11, 마24:43, 벴후3:10).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준비할 때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고 했고,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라”(엡3:13)고 했다. 세상적 육체적 편함은 죽음과 멸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지만 영적 고난과 불편은 축복과 구원과 천국의 영생복락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편함에 유혹되지 말고 힘든 고난과 불편을 잘 참고 인내하며 극복하므로 영원한 안식의 참된 편함을 누리시길 축원한다.

이제는 공상과학소설(SF: Science Fiction)이 아니라 실제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똑같은 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편함과 축복은 커녕 핍박, 고난, 조롱, 업신여김의 불편함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크나큰 모순이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의 불편함 가운데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탄 마귀는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 첫째는 너무 바쁘게 하므로,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둘째는 너무 편하게 하여 게으름과 나태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말세에 세상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편함이 좋다고 졸며, 게으르고, 나태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잠6:10-11, 마24:43, 벴후3:10).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준비할 때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의 회복과 부흥... 제7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 7회 글로벌다민족연합콘서트가 지난 18일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연합회: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월넛크릭 지아이영교회 담임) 주최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위치한 월넛크릭 Saint Matthew Lutheran Church(담임 Kevin Murphy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7회 글로벌다민족연합콘서트가 월넛크릭 세인트매튜루터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167:3) 주제로 35여 민족교회 700여명이 모여 미국의 회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소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결속을 다졌다. 이번 콘서트는 미국 주류교회가 중심이 돼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스라엘 기독교회들과 러시아, 루마니아, 아시아권, 라티노, 아프리카, 태

평양 아일랜드 등이 연합해 바이올리니스트 Maurice Sklar의 'Hope', 'Pray' 등의 특별연주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갈채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정윤명 집사(한국 명성교회), 정지운 사모(팔로알토아이교회), Rev. Kang Liu, Lori cooper의 4중창 "How Great Thou Art"과 함께 "Heart Beat" 듀엣중창으로 감격을 더했으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한 특별기도문도 스크린에 띄웠다.

Doug Stevens 목사(폴리신학교 교수)와 Lori Cooper의 사회로 진

행된 이날 콘서트는 대화장 정윤명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Steve Will-hite(공교드벵엘교회) 목사의 개회 기도와 Kevin Murphy 목사의 열방의 구원을 통한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가 있었으며, John Shouses 목사(골든게이트 조직신학교수)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Murphy 목사는 환영 메시지에서 "문화와 언어와 세대의 차이는 있어도 구원받은 모든 민족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갖고 모든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고 역설했다.

대화장 정윤명 목사는 "글로벌다민족 연합행사를 통해 여러 민족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이뤄 글로벌다민족콘서트,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컨퍼런스 그리고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오는 10월 1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 10회 글로벌국제다민족선교대회(장소: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신학교)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니 인터뷰

김재연 목사 (칼빈대학교 총장)

“말씀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해야”

칼빈대학교 총장 김재연 목사(전 세계비전교회 담임)가 LA를 방문했다. 김 목사는 상황중양장로교회 EM파트 장로장임을 하는 아들을 축하하고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LA는 나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여는 김재연 목사는 자신의 저서와 유인물들을 보여주며 지난 2년 반동안 한국에서의 활동을 들려주었다.

지난 40년 동안 이곳 LA에서 젊음을 바쳐 혼신을 다해 왔던 목회사역을 접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역을 위해 칼빈대학교 총장으로 옮겨 왔을 김재연 목사. 김 목사는 “금번 세월호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팠고 모든 것이 '내 죄'라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곤 했다”며 이번 여행 중 비행기에서 깊은 영감으로 써내려간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란 글(참조: 16면 광고)을 내보이며 모든 유가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이곳에서 함께 아파하는 한인 교포들, 그리고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김재연 목사에게 LA 방문소감을 묻자, “LA에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여기가 진짜 고향 같다”며, 지난 40년 동안 LA에서의 목회 추억과 목사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당시 두 개의 목사회를 하나로 통합되게 했던 일들, 원로목사부부 무료여행, 목사 신분증 발행 등을 언급하며 그 시절에 대한 감격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 목사는 칼빈신학교 교육이념에 관해 “모든 신학교마다 설립목적과 설립자 이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칼빈대는 학생들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진실한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예수님처럼 배 풀고, 군림이 아닌 섬기는 목회자로 자기 분야에서 주님은 물론 사회와 어린이까지 섬기는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김재연 목사는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협의회는 복음주의 신학교 26개가 모여 매년 한 차례씩 연수회를 갖고 논문 발표나 세미나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들은 사건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선박의 선장들과 같다. 만약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안 할 말을 해버리면 세월호의 선장과 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영안과 영귀가 열려 기도하며 말씀을 실행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한다”며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미주예심전도대학 제6기 졸업식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 제 6회 졸업식이 지난 19일에 열렸다. 금번에 졸업한 졸업생은 총 24명으로 그동안의 학습과 훈련 그리고 실제 전도에 대한 간증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예심대학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박용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예배는 간사 김승업 전도사의 기도, 졸업생 출신인 유성국 목사의

설교, 그리고 김용태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은 현재 7기생들이 매 화요일 오후 7시에 훈련을 받고 있으며 6월 2일(월) 제8기를 시작한다. 미주예심전도대학에 입학할 원하시는 분들은 (714)401-9874 미주예심전도대학(남가주빛나리교회 소재)으로 하면 된다. 주소는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기사제공: 예심대학)

〈1면에서 계속〉

죽음을 앞둔 환자들만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영적 체험들을 깊숙하게 맛본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일정하게 자신의 영역으로 향하는 길목을 열어서 선택받은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셨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천상의 사다다리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종말에 있게 될 목시적 비전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당신의 영역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아시씨의 프란시스, 노르웨의 줄리안 그리고 아빌라의 테레사 등이 보였고, 심지어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초월영역에 대한 비전이 자신의 신앙적 열정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하여, 자신이 입고 다니던 코트 안쪽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적어서 다녔다:

“철학자나 현자의 하나님이 아닌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기쁨과 평안/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 폴론 부포의 천국 이야기는 성경이나 교회 전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람들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는 이유는 바로 유치원에 다니는 부포의 천진무구함과 초자연적 경이가 만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은 진짜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4살짜리 때문지 않은 아이의 눈으로 본 천국이기에...

그러나 부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 번째 사람들은 부포의 이야기를 일종의 천국 가이드북으로 여긴다. 일종의 반복되는 사건의 연속으로 여겨, 사후세계에 대한 경험적 변증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부포가 의식이 깨어난 후, 곧바로 크레용으로 자신이 본 바를 그렸더라면 더욱 더 확실한 묘사가 있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다.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반면에 부포의 이야기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천국의 세밀한 묘사나 예수의 외모에 대한 묘사보다는 성경의 권위에 비춰서 부포의 경험을 받아한다는 견지를 고수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임사, 황홀을 통한 천국을 봤다는 경험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우선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담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초자연주의자들이다. 분명히 경험은 궁극적인 가이드가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조명하에서는 참고나 참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경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이다. 모세, 다윗, 이사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하나님이지 않은가? 그리고 항상 우리의 경험은 성경에 의해서 비춰서 그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교회역사에 있어 경험은 항상 양날을 가진 검과 같았다. 만약 경험의 한쪽 날인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영역에만 있다면, 경험은 성경안에서의 신앙을 실제로 더욱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어져서 성경의 자리까지도 넘

보게 되면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 왔다.

따라서 경험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는 항상 신학의 주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만큼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항상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점 때문에 “분별의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포의 간증은 천국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천국을 믿는 자들에게는 황홀한 전율을 느끼도록 만든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진리는 어린 부포가 본 천국 이야기는 천국으로 향하는 가이드북 이상의 내용, 즉 수순대에 올라서서 혼자서 외로움과 고통에 가득차 있는 어린 소년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아이의 고통에 같이 슬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폴론 부포에게 정말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상이나 최면인지는 아직도 신비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기에,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을 조우하게 될 때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력이다. 따라서 경험을 무턱대고 신뢰하거나 또 바로 이성이나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조명하에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경험으로 관명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신앙 체험이 된다.

Advertisement for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with details on dates, destin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YNAMICS 다이내믹스' (Dynamics Dynamic) featuring Adidas and Dynamics World,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website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offering various floral arrangements and services, with address and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LA Hotel-style Lodging) with location map and contact information.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 2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2일(월)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당에서 열린다. 이번 졸업학위 취득자는 목회학석사 9명, 기독교교육학석사 1명, 선교학석사 4명, 여교역학 2명, 신학사 2명 등 총 18명이다.

▲문의: (718)463-7163

뉴욕목사회 목회자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주최하는 세미나가 27일부터 30일까지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열린다. 27일(화) 오후부터 29일(목)까지는 설교클리닉 강의를 진행하며 30일(금)에는 라흥채 목사(교회 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가 강사로 선다. 설교클리닉 강의는 교재비 50달러가 있으며 중식이 제공된다. 라흥채 목사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는 무료.

▲문의: (718) (917)968-1024



고 김성은 양의 부모 이만호 목사와 이진아 사모가 상패를 대신 받았다

이만호 목사의 딸 고 이성은 양

뉴욕주상원 '위대한 여성상' 받아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이만호 목사의 딸 고 이성은 양이 뉴욕에서 수여하는 '위대한 여성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존엄성 논쟁을 일으켰던 고 이성은 양은 지난해 2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만호 목사와 동 교회가 성은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제공 등을 하는 등 구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마련했다.

뉴욕주상원 위대한 여성상은 타에 귀감이 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상으로 이성은 양은 생전에 소년소녀가장과 어르신들을 돕고 다양한 선교지의 어린이들을 도왔던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상은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의 추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아벨라 의원은 고 이성은 자매의 생전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엘리경로센터 창립예배에 참석해 고인의 활동을 듣고 여성상을 추천했다.

이만호 목사는 "앞으로 성은이가 생전에 보여줬던 자세대를 기르는 어린이 인재양성 사역과 노인공경 사역들을 더욱 더 힘써서 섬김의 사역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면서 "성원해주고 기도해준 준동포사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뉴욕주 수도 알바니에서 있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의회 노방전도를 마치고 회원 목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날씨래칭 친목도모... 필라/뉴욕 공동우승

제8회 미동부지역 4개주 목사회연합체육대회



필라델피아 팀과 배구경기에서 뉴욕팀이 선전하고 있다.



샬롯지역 축구대회를 마치고 선수 및 교회성도들이 기념 촬영했다.

제 8회 미동부 4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19일 필라델피아 웬트런 파크에서 열려 뉴욕과 필라가 공동우승 했다.

매년 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지역 목사회가 연합해 갖는 친선 체육대회는 올해 필라목사회가 주관했으며 4개 주에서 150여명이 참석했다. 뉴욕에서는 40여명이 대형 버스를 대절했다.

1부 개최예배는 조상택 필라목사회 총무 사모로 메릴랜드목사회 회장 강장석 목사의 대표기도, 뉴저지목사회 회장 이병준 목사의 성경봉독, 필라목사회 회장 차명훈 목사 설교, 필라목사회 체육분과위원장 박도성 사모의 광고, 뉴욕목사회 회장

황동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개회식에 이어 지난해 우승한 뉴욕팀이 우승기를 반환하고 차명훈 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경기 진행안내, 대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는 축구, 배구, 족구, 탁구 등 4개 종목의 경기를 펼쳐 뉴욕과 필라가 동점(900점)을 기록, 공동우승했으며, 우승기는 필라가, 우승컵은 뉴욕이 각각 나눠 가졌다. 2등은 700점을 얻은 메릴랜드, 3등은 500점을 얻은 뉴저지가 차지했다. 폐정 날씨 가운데 모처럼 즐거운 만남의 시간도 가진 미동부 지역 목회자들은 내년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제 9회 대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다음은 종목별 순위.

△족구: 우승 뉴욕, 2위 필라, 3위 메릴랜드 △배구: 우승 메릴랜드, 2위 뉴욕, 3위 필라 △탁구: 우승 필라, 2위 뉴저지, 3위 뉴욕 △탁구: 공동우승 뉴욕, 뉴저지, 필라.

(유원정 기자)



사모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건강한 가정 & 다음세대 세우기"

뉴욕사모기도회 사모세미나, 강사 신상언 선교사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과 뉴욕사모기도회(회장 이연주 사모)가 주최한 사모세미나가 지난 19일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열렸다. 신상언 문화선교사를 강사로 "아들아 마음을 지켜다오"라는 제목으로 "세상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건강한 다음세대 세우기 &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내용의 강의가 진행됐다.

세미나는 전혜순 사모(뉴욕교협 사모분과위원장)의 사회로 김봉규 목사의 찬양과 경배, 대표기도 이연주 사모, 세미나, 광고 김경신 사모(사모회 총무), 폐회 및 식사기도 장경혜 목사(교협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신 선교사는 "예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교육은 전문성이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며, "설기며, 절하며 섬겼으므로(삿2:1-15 참조)의 사사기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2007년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부터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다. N세대가 죽어간다. 정체성, 안정감, 세계관이 변질되고 다림줄이 휘어졌다. 가정문

제는 부부문제라 아니라 자녀문제다. 포스트모던시대에서 페러다임 바꾸기, 세계관 바꾸기, 교육과 양육에 대한 전문성 쌓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선교사는 "하나님은 교회가 예배공동체로, 교육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행동을 전제로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는 통찰력과 능력을 갖게 된다. 행동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N세대의 5가지 문제는 역기능 가정, 미디어(문화, 컴퓨터), 욕망(세상정신), 상처,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상처로 인한 고통은 십자가 앞에서만 치유된다고 교회와 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너는 내 아들이라"를 찬양하기도 했다.

신상언 선교사는 낮은올타리·올타리문화선교회(CUE) 대표로 1989년부터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N세대부흥과 가정회복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축복의 사위", "직면" 등 다수가 있다. (유원정 기자)

제 5회 샬롯축구대회 샬롯장로교회 우승

샬롯축구협회가 주최한 교회대항 제 5회 샬롯축구대회가 지난 3일 엘런 파크에서 열려 샬롯장로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A와 B조로 나뉘어 △A조: 남부장로교회, 제일장로교회, 샬롯축구회 △B조: 샬롯장로교회, 베델교회, 아틀란타축구회) 각 조에서 세 팀씩 경기를 펼쳤다.

마지막 결승전에는 남부장로교회와 샬롯장로교회가 올라와 경기를 펼쳤으나 동점을 이뤄 결국 승부

차기로 샬롯장로교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담임 나성균 목사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전했으나 최근 들어 새롭게 시작된 축구대회에서 작년 출전 이후 2년 만에 우승기를 차지하게 돼 은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더욱 단합해 전진케 됨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 플러싱서 노방전도

"할렐루야복음회대회 홍보도 적극 나서겠다"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는 지난 16일 뉴욕효성교회(담임 김영환 목사)에서 열린 월례회를 마친 후 플러싱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노방전도를 펼쳤다.

회장 허윤준 목사는 최근 새로 제작한 한영 일대일 전도지, 4개 언어 전도지는 총 57개 교회가 힘을 모아 14만장을 제작했다고 소개하고, "특히 5, 6월에는 할렐루야복음회대회 전도지를 노방전도 시 배부해 대회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다. 현재 뉴욕주 비영리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

드린다. 가을에는 전도부흥회를 열어 뉴욕 전역에 전도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노방전도에는 회장과 총무 등 6명의 목사들이 플러싱 공영주차장 주변과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 흩어져 노란 띠를 두르고, 준비한 전도지를 건넸다.

한편 월례회는 총무 안승백 목사 인도로 박성원 목사의 기도와 김영환 목사의 설교, 김태욱 목사 광고, 신현택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신, 구약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니엘과 모하메시록 성경 세미나

한국과 일본에서 4차례 이상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라흥채 목사님의 세미나는 교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구원역사를 재조명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평신도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재충전되는 귀한 영적인 세미나입니다.



<라흥채 목사의 저서들>

장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제자들교회(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육관)

- 주 소: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 11363
- 전 화: 917-968-1024/718-224-1993<서적구입 및 세미나문의>
- 이메일: andcny1@gmail.com/교회웹사이트: http://www.nyandc.org

<2014년 5월중 세미나 일정안내>

일시: 2014년 5월30일(금)
장소: 뉴비전교회

- 주 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 후 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2012-2014 세미나 현황

미 동부지역 뉴욕/뉴저지 세미나 현황

- <2012년> 뉴욕갯세마네교회/ 뉴비전교회, 뉴욕, 뉴저지 워싱턴신학교
- <2013년> 뉴욕행복교회/ 뉴욕어린양교회/ 뉴저지 주애수사랑교회/ 선한목자교회/ 큐가튼성신교회/ 뉴욕즐거움교회/뉴저지 워싱턴신학교
- <2014년> 뉴욕대한장로교회

해외지역 한국/일본 세미나 현황

- <2012년 1차>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 <2012년 2차> 서울 승복교회/ 은현교회/ 광성교회/ 인천 온누리장로교회/
- <2013년 3차> 동경 베델교회/ 전주완산교회/ 제주 이기풍기념관 대전동안교회/ 진주교회
- <2014년 4차> 동경 행복교회/ 광주 사랑의빛교회/ 경기 예담교회/ 진주전산교회/ 부산가나안교회/ 부산남산중앙교회

'세월호' 이후 기독교계 달라져 연합·중보기도 확산...주일설교 메시지도 바뀌어

지난 9일 밤 경기도 안산 단원고 인근의 안산제일교회 본당.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연합기도회에서 근래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됐다. 예장통합과 예장동합, 침례교, 감리교, 기성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5명이 단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였다. 주요 교회연합기관 사이의 갈등 등으로 수년간 교단을 아우르는 연합 행사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교단장들이 맞잡은 손은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한달 째를 맞는 세월호 참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낳고 있다.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회연합운동이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교

단들은 연합기도회와 피해자 치유 사역 등을 준비하면서 중단된 연합 사업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관계자는 15일 "주요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연합사역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와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주일 설교 메시지도 바뀌었다. 위로와 회개,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른바 '세월호 설교'가 교회마다 이어졌다.

"이번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난 4일 주일예배 강단에 선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는 교회와 성도

들의 영적 각성을 강조했다. 지난 달 27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의 상황을 예로 들며 "환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세월호 참사로 60여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안산지역 교회들은 설교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인내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민경보 안산광림교회 목사는 지난 11일까지 '고통 앞에 선 인간'을 주제로 3주 연속 설교했다. 그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혼돈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고 전했다. 김학중 안산 꿈의교회 목사는 페이스북에 하늘나라로 떠

난 학생을 위한 추모시를 올려 애도를 표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위로와 영적 각성,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신앙인 각자 스스로 자기검증을 하며, 나아가 정부나 사회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건전한 비판까지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중보·금식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고, 자제 성금 모금을 통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행사 등을 축소하거나 취소, 연기하면서 사회적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는 교회도 많다. 서울 연동교회는 지난 11일 주일예배 광고 시간을 이용, 교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영상을 통한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교계반응 엇갈려 한교연 등 긍정적, 기독교협회 부정적

한국교회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유병인 구원파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주문했다. 담화에 담긴 박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렸다.

한국교회연합은 "세월호가 침몰된 한 달여 기간 동안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과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결단의 표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교연은 "대통령과 정부는 다시 이 같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승화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참사에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가 연관돼 있다"면서 "정부와 검찰은 이번 사고의 배후세력과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과거 오대양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단집단이 사회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부른 대책을 내놓기보다 먼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은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이 모두 참여하는 보다 넓은 차원의 대책 마련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장모회는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구조실패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 장차관들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일괄 사퇴함으로써 국가적 비극 앞에 속죄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교계 인사들 중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이 많았다. 이영주 한국교회연합회 대변인은 "담화문에 안전체계 확립과 공직사회 대수술, 관련법 제정 등 강력한 조치가 담겨 있어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진정성이 느껴졌다"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인 구원파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수사를 진행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은 "실천이 얼마나 뒤따르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특검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은 슬픔에 빠진 국민의 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추진 중인 개혁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종교계는 물론 온 국민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장 백석-개혁 교단 통합 명칭 '예장백석' 사용, 백석총회헌법 따르기로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예장 백석·총회장 장중현 목사)과 예장 개혁(총회장 한광식 목사)이 교단통합을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예장 백석과 또 다른 개혁 교단(장지동 축)의 통합 이후 8개월 만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타 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장 백석과 개혁 교단의 임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백석총회본부에서 통합선언식을 열고,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2개월간 교단 내 여론을 수렴해 작성한 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교단의 명칭은 '예장 백석'을 사용키로 했으며 백석총회 헌법을 따르기로 했다. 총회장과 임원 역시 현 백석의 임원이 맡기로 하되 개혁 측 증경 총회장과 개혁 산하 노회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혁 측 신학교를 교단 인준 신학교로 지정키로 했으며, 개혁 측 목회자들은 통합 즉시 백석의 정회원이 된다. 또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일정 기간을 수학하면 문憑으로 받아들여기로 했다.

통합 교단의 총회장인 장중현 목

사는 "자연적인 교세 확대가 한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해 건강한 신학을 가진 교단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두 교단의 성장과 도약이 한국 교회에 도전되는 것"이라고 통합 취지를 설명했다.

백석은 지난해 개혁 교단(장지동 축)과의 통합으로 소속 교회가 3200곳에서 4200여곳으로 늘었고, 이번 통합으로 다시 4500여곳으로 증가했다. 장로교단 중 예장 합동(1만1000여개), 예장 통합(8000여개)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예장 고신(총회장 주준태 목사)과 합심(총회장 이주형 목사)도 교단 합동추진위를 만들어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두 교단은 내부에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을 서두르지 않고 공감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 교단 합동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정치·교류·신학 등 3개 분과를 조직했으며, 교역자 및 장로 수련회 등에 상호 대표단을 파송하는 등의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와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교단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기하성 측의 부채 등 난제들이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PD수첩 왜곡·과장 법적 대응" 사랑의교회, "교회 반론 거의 반영 안 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14일 MBC 'PD수첩'이 전날 방영한 '서초동 사랑의교회 편'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교회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PD수첩은 13일 밤 11시15분부터 약 45분 동안 '법원으로 간 교인들, 사랑의교회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2012년부터 불거진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재정 유용 의혹, 교회 관계개정 논란 등이 주된 내용으로 오 목사 반대 측 모임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의 주장과 교회 측 반박 등을 함께 다뤘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됐다. 정해놓은 의도와 방향에 따라 자료들을 모으고 내용을 조합

했다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특히 "PD수첩의 요청에 따라 5시간에 걸쳐 반론 인터뷰를 성실하게 응했음에도 수만명의 성도를 대표하는 교회의 의견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전체 방영시간 중 교회의 반론 시간은 3분여에 불과했다. 교묘한 편집으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PD수첩이 제기한 논문 표절 및 재정·건축, 정관계정 부분 등 의혹 대부분은 이미 해명된 사안이며, 극소수 이탈 교인의 제보와 주장에만 의존해 부정적인 교도 편파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사랑의교회는 방영 내용에 대해 MBC를 상대로 반론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허위사실을 제보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D수첩 방영 내용에 대한 세부 반박 자료도 조만

간 공개키로 했다.

한국교회연합회도 13일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 MBC의 교회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MBC PD수첩은 개신교를 10회 다뤘지만 불교는 3회, 천주교는 2회에 불과했다.

언론회는 "MBC는 2011년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PD수첩을 통해 보도했고 최근에도 뉴스에서 다룬 바 있다"면서 "한 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 번씩이나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하기 어렵지만, 공영방송이 비슷한 사안으로 한 교회를 계속 들쭉수는 행위는 결국 교회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 "MBC는 3년 전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법부에서는 (건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사과와 반성언커녕 또다시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가톨릭 '교회론' 분별할 부분 있다" 예장목사장로교회기도회서 린백 총장 문제 제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의 '제51회 목사장로기도회'가 막을 내렸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 폐회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고 강조했다. 사흘 동안 이어진 기도회에는 연인원 1만5000여명이 참석해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의 불꽃을 모았다. 묵회·선교·신학·미래 등을 주제로 한 22개 트랙별 강기도 병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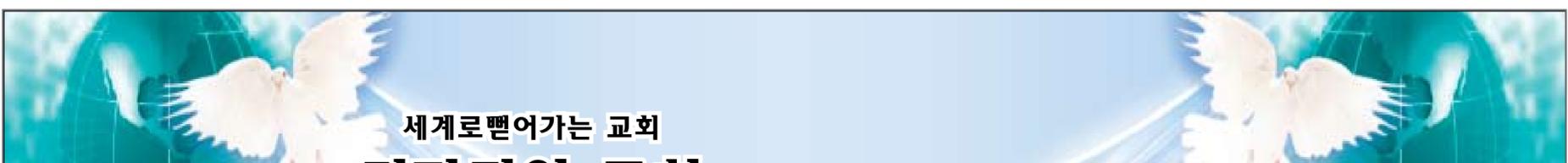
가장 관심을 모은 순서는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대 피터 린백 총장의 13일 강연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린백 총장은 "오는 8월 방한 예정인 교황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관심을 갖는 것은 합당하다"고 전제하면서 "교황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진리의 관점에서 분별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만큼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백 총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가톨릭에 만연한 계급·계층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목회적 마인드로 신자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섬기는 지도자를 표방하며, 가톨릭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전의 교황들과 다른 새로운 메시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그에 대한 칭송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린백 총장은 그러나 가톨릭과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무엇보다 교회론에 대해 분별해서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원하는데,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게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교황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린백 총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우리 자신, 즉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의 본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분열상을 두고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우리는 약해지고 적은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백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봉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화·목·금: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EM예배: 오전 1:30 초고령예배: 오전 10시 (8월-11시) 유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한국어예배: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8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jpccscattle.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www.kpcd.org</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8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Fax.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51)542-0288, Fax. (251)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남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북부예배: 오전 9: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06)458-0191 www.mpcow.org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www.jkcc.org</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대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수명</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661-6675, Fax. (253)474-9844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15</p>	<p>템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www.tkcpc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변하는 아시아와 새로운 선교전략” (3)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II. 오늘의 아시아교회를 위한 바울의 선교전략

인류역사는 문명의 발전을 동반하면서 되풀이 되고 있다. 동양인의 역사관은 순화하는 역사관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으며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며 또 재생하여 같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서양인의 역사관은 나사모양의 역사관이며 인류역사가 농촌 문화로부터 봉건제도 문화로 그 자본주의 문화로 상승되었고 그 현대문화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진보되는 것이다.

1세기 때의 바울의 선교전략이 21세기 아시아교회 선교전략에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1세기 사회와 교회

는 60미터, 기둥들이 20미터 높게 세워져 있었고 성전 방물관은 빛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이 성전 안에 아데미 여신을 경배하였다(행19:27-28).

이와 같이 오늘의 세계 대종교는 모두 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다. 인도와 네팔의 8억의 힌두교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4억의 불교인, 아시아의 10억의 무슬림, 그 외에 수백만의 신도교인, 도교인, 유교인이 살고 있다. 아시아는 종교의 대륙이며 정부의 재정적 도움과 선전으로 정통종교를 강화시키고 있다.

3) 최악의 도시: 죄의 감각을 잃은 도시. 바울은 에베소인의 음란한 상태를 표현하기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

2.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선교 전략

에베소교회와 아시아교회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에베소교회는 작은 수의 교인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아시아교회도 아시아 인구 약 45억 가운데 단지 5%밖에 안되는 소수 민족이다. 둘째로 에베소교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이 심각하였다(엡 2:11). 이와 같이 아시아의 교회들도 다양한 언어, 지방색, 시골-도시 차이, 세대차이 등의 배경 때문에 분열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소수민족, 교회내 분쟁, 미약한 제자훈련 등 공통점 바울 선교전략인 교회지도자 양성으로 아시아 선교

는 오늘의 아시아의 사회와 교회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도바울이 오늘 아시아에 살고 있다면 그가 분명히 에베소도시와 교회를 지시하면서 에베소교회에 지시한 선교전략을 한 개의 좋은 모델로 아시아교회에도 주실 것이다.

1. 1세기 에베소 도시와 오늘의 아시아의 공통점

1) 최대의 인구: 50만명. 1세기 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는 항구, 중앙시장, 도서관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의 중심지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는 오늘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대륙이다. 사도바울이 1세기 때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전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아시아의 소수민족인 기독교인(5%)이 95%의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교의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종교의 도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대성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성전은 에베소도시 밖에 있었다. 이 성전은 길기는 120미터, 넓

랑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였다(엡4:19). 이와 같이 오늘의 아시아 사회도 부정부패, 다종의 성문란, 다종의 죄로서 도덕성의 감각을 상실해 버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4) 종교핍박 사도행전 19장23절 이하를 보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에베소인들에게 판매한 데메트리오라는 상인이 바울의 전도 때문에 자기 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대하여 에베소 시민을 동원하여 시가 행렬을 하며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행19:28)”라고 하였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은 로마제국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순교를 당하였고 “카다콤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같이 아시아-3과 아시아-4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날이 늘어가는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의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수백 개의 기독교 핍박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오늘의 기독교 핍박이 로마제국 콘스탄틴황제가 주후 313년 밀란칙령(Edict of Milan)을 선포하여 종교자유를 선포하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핍박을 추억하게 만들었다.

셋째로 에베소교회는 제자훈련이 약한 탓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엡4:14)라고 권면하였다. 오늘의 아시아교회도 심각한 교회지도자 부족난으로 제자훈련도 약하고 신앙의 성숙성과 이단문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의 에베소교회를 위한 선교전략은 교회지도자의 성령의 은사(사도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강조하였다(엡4:14). 오늘날도 이와 같이 교회 지도급의 은사를 강조하여 제자훈련을 통하여 튼튼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면 그들이 평신도를 훈련시켜 전도, 선교, 학생사역 외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소수민족인 기독교인이 어떻게 아시아 대륙의 막대한 수의 비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바울의 선교전략인 교회지도자 양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효과 있게 타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가 성경을 깊이 배우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계속)



방지일 칼럼 (40) “본대로 들은 대로”

정년은퇴 후

어느 초대에 갔더니 오래 일한 분들이 정년은퇴 후에 여가를 보내는 일이 거의 전부였다. 60은 다 넘었지만 그들은 건강하시다. 한 평생 일하시다가 쉬는 것은 하루 일하고 밤에 쉬는 식이라 의당 있을 일로서 당연한 일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증거이기도 하다. 내 여덟 때만 해도 회갑이면 다 늙어 허리가 굽고 두 손을 등에 대고 그 걷는 걸음도 불똥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70 고회가 회갑에 해당한다고 다들 말한다. 말할 뿐 아니라 실상이 그러하다. 60은 청년이라 하게 되었다. 비록 정년 은퇴하여 그 일에서 물러나게 되어있으나 건강도 하고 활동할 만한 힘이 있는데도 가만히 일 없이 누나는 것은 그 자신으로나 사회적으로 인력낭비의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후계자들이 있어 내 자리를 그에게 내어줄은 또한 뜻밖의 일임에 틀림없다. 후배를 기르는 좋은 미덕이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내 육적 정신적 역력이 충분했는데도 은퇴하였다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다. 하지 못하게 되어 놀고 시간을 보내다함은 어딘지 모르게 아쉽다. 또 본인들에게도 일없이 사는 것처럼 괴롭고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무 일 없이 놀고 지내니 좋다고 생각하는 이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고역은 없을 것이다. 사회제도가 이렇게 됐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살수도 있겠으나 일하기 위하여 태어난 인간이라 일 없이 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은퇴한 이들의 할 일을 사회적으로도 안출해내야 하겠다고 생각해 본다. 일에 한도가 있고 일할 일꾼이 많을뿐더러 실직자가 많아지는 이 현실에 은퇴한 이들에게 일감을 준비한다는 일은 연목구어(緣木求魚) 하겠다. 쓸 데 없는 헛소리일 뿐일 듯 하다.

은퇴자 자신이 일감을 찾아본다. 안출하여 할 일 찾는 일을 찾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이해득실을 떠나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일할 줄 알고 살아야 할 것이다. 산 사람의 당연한 임무라 할 것이다. 사회적 인간의 생리적 요청으로 정년제가 있어 후배를 위해서 또 개인의 일할 능력의 비례로 정년제가 채택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 지속할 것이다. 그러하되 사람에게 일감이 있어야 사람 삶의 보람이라 그 적당한 일감이 그 개인으로 찾아져야 하리라 보아진다. 연령에 맞는 일감 내 취향에 맞는 일감이 각각 있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떠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한 봉사의 일은 더욱 더 귀한 일이다. 작은 수공업이라도 개인적으로 혹은 불우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유자재로 하루 몇시간씩 일할 일감을 준비하여 그 일의 소득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이리에 보내는 그런 기구가 사회적으로 생기게 되면 큰 보람을 찾을 것 같다.

옛날이라 하겠다. 내가 중국 가기 전 순천군 후탄면 양포리 교회에 좌각일이 전국적으로 앉은뱅이를 수용하여 저들은 명함, 인쇄, 도장 파는 일, 그물 뜨는 일 등의 수공 일을 하게 했다. 이는 그들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니와 이와 방불한 공작 혹 일터가 없어 수시로 들어가 일하게 되어진다면 하루에 두세 시간의 일이라도 매일 할 수 있으면 한가하게 놀 시간을 찾는 것보다는 시가 보람일 일은 아니겠는가. 구체적으로 다 생각해내지도 못하겠거니와 생각 있는 이들이 창출해 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터가 은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속셈이다.

건강한 분들이 수두룩하게 은퇴하여 날마다 오락으로 소일을 한다면 무의미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덕도 되지 않는 듯하다. 피차 보기에도 딱하다. 이런 일감이 있는데도 자신이 원하여 하는 일일뿐이라 거기 요는 없다.

노는 것보다 염소 한 마리라도 먹여서 자신이 가족용으로 또는 이웃 불우한 노인에게 제공해드리는 일도 실로 보람된 일일 것이다. 염소 한 마리 정성껏 먹이는 일만 해도 한 사람의 일이 충분히 되리라. 그 배설물도 호박 한 두 포기 심는다면 호박죽은 흐뭇이 먹을 수도 있으리라. 토마토 몇 포기 심어주고 남는 것은 이웃과 같이 먹는다.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일까. 노는 것은 산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금물이다.

교역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할 일도 다양할 것이다. 성경 한 권의 단어들을 나열 분석 그 유사어의 비교 이런 공헌도 후배들을 위한 한 공헌이 되리라 본다. 부질 없는 말인듯 하면서 남겨 둔다.

(1999년, 3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p>뉴욕갯세미네교회</p>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p>뉴욕목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917)733-7387, Fax. (516)88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aey@nyc.rr.com</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일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718),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p>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foc.org</p>	<p>뉴욕중부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fbc.org Tel. (718)279-2757, 2756,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p>뉴욕초대교회</p>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후 1:30 화요찬양예배: 오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dochurch.org/</p>	<p>리빙스톤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9:45 창립기념예배: 오후 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www.lcny.org</p>	<p>롱아일랜드성결교회</p> <p>담임목사: 김석형</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p>에벤에셀선교교회</p> <p>담임목사: 최창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j.us/</p>	<p>에사랴교회</p> <p>담임목사: 손한권</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주비전교회</p> <p>담임목사: 이규본</p> <p>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원호</p> <p>주일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http://kqpc.org</p>	<p>퀸즈한인교회</p>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p>Tel. (718)967-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p>	<p>한마음침례교회</p> <p>담임목사: 박마이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p>
<div style="text-align: center;">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h3>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하와이 행복한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www.hawa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td> </tr> </table>				<p>하와이 행복한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www.hawa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p> <p>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0000 Fax. (718)886-0074 </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하와이 행복한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www.hawa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0)

3. 전세계 안인공동체에 대한 사역에 임해야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은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갖는 미래적 과제들 중, 그 다섯 번째 과제인 "한인교회는 우리 다음세대의 학교교육에 책임 있게 관여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다음세대(어린이들과 청소년들)를 양육과 교육으로 섬길 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형성과 영적인 성숙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도록 교육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탄탄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길러내는 것이 그

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세속화된 미국 사회의 학교교육에서는 많은 경우 성경적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 그리고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된 지식과 정보와 가치들로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 미국의 학교교육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옛날이야기입니다. 미국사회도 이미 기독교인 50% 미만으로 내려오지 오래이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기도 어색할 만큼 다양화, 세속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공교육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종교적 내용을 가르칠 수 없었고, 세속적 학문에서 비롯된 지식들이 그 교과과정의 내용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인교회들

해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편만한 교육을 위한 공립학교들이 발달하면서 미국사회도 더 이상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상호 보완적인 체제로 흘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교회는 새로이 기독교 초, 중, 고등학교들을 세워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그들의 자녀들을 탄탄한 성경적, 기독교적 인성관,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육하고자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오해될 비기독교 가정들에서도 그들의 자녀들을 보낼 정도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독교 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최근 15-10년 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문제에 대

한인교회가 다음세대 학교교육에 책임 있게 관여해야 미국-기독교사립학교, 한국-대안학교로 교육에 책임

공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의 다음세대 교육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형성되고 영적으로 성숙되어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세계와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젊은이들로 성장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계무대에서 크게 일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눈으로 우리 한인교회들의 교회학교들의 현실과 그 교육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앞서 말한 다음세대 교육목적과는 무척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원대하고 원칙적으로 옳으나, 우리의 현실과 실체는 이러한 교육목적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 만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한 주에 한번 혹은 두 번 진행되는 교회교육이, 절대적인 교육시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마저도 힘든 것이 다음세대들의 교회학교(우리 한인교회에서는 children's ministry 그리고 youth ministry로 불리고 있는) 참석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

은 다음세대들을 탄탄한 성경적, 기독교적 인성관,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워내는데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단 한인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같은 사회 및 교육 상황을 공유하는 미국교회도 그러하며, 한국교회 또한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교회나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는 위와 같은 형편에 부족한 다음세대 교육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와는 달리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는 이미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가장 앞선 것은 미국교회였습니다. 뭉치뭉치해도 기독교적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이니만큼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초, 중, 고등 사립학교들과 사립대학들이 설립되어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이 많이 퇴색했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우수한 사립대학들은 애초에 교회적 기반에서 기독교적 진리와 가치를 토대로 교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사회의 경우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자연스럽게 상호 호

여 책임 있는 반응과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교회학교를 경험하면서, 또한 너무나 급하게 세속화되어버렸고, 손쓸 수 없이 악화해 가는 한국사회안에서, 그 사회를 그대로 축소해 놓는 듯이 폭력과 부정 그리고 비인도적인 인간관계 (왕따, 계산적인 교우관계, 무너진 사제관계 등)가 난무하고, 세속적인 성공만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교육을 행하는 한국의 학교교육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행동하는 것을 미룰 수 없었던 듯합니다. 이에 한국교회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설립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또한 현재도 활발하게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참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회학교 및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위와 같이 대처하고 있다면, 우리 한인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에 책임 있게 관여하여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인자의 권세(막2:1-12)찬14장

본문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자기주장을 통해 우리는 2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기적적 치료보다 주님의 돌발적인 자기주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자신이 다니엘 예언에 나온 인자(단7:13)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중보자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는 분이시란 주장과 함께 그 의미를 증폭시키심으로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자기주장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

째, 이 선포가 당대 서기관들에게 미친소리 내지 신성모독으로 평가됐으나 사실이었습니다. 인자로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백성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중풍병 같은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육이 온전해지는 완전치료가 일어납니다. 이 인자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확신으로 살아갑시다.

화 안식일의 주인(막2:13-28)찬57장

안식일의 진리가 점점 희석돼가는 우리 시대에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 가는 길의 밝은 등불과 같습니다. 첫째, 부르신 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13). 주님의 부르심은 절대권위의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실 때 목적이 있고 부름에 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을 따라 효과적인 사역을 이뤄야 합니다. 둘째,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22)는

선포는 어둠을 광명으로 밝히는 낮과 같은 시대란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혼인잔치 날이라고 했고 바울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 곧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교회는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을 요구받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알보다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28). 내용이 없는 겉핥기의 아름다움은 추함이고 독입니다. 이 가르침을 귀히 여깁시다.

수 귀신을 대적하자(막5:1-20)찬393장

귀신의 활동은 그 나라의 임함을 증거하는 본문은 어떻게 귀신을 대적하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귀신은 첫 아담을 넘어뜨린 시험하는 자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본래 천사장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다가 저주받아 쫓겨나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때로는 천사의 영광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공략해 시험에 들게 합니다. 둘째, 마귀는 언제나 손해를 끼칩니다(13). 돼지 2천마리에 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마귀는 두루 행하는 자이고

거처를 찾아 안주하려 하고 들어가 손해를 보게 합니다. 셋째,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쫓겨납니다(19).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가정의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복음화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아담 이후 재림까지 먼저 가정의 말씀화, 가정의 경건화, 가정의 성령 충만화가 우선입니다. 이곳으로 갑시다.

목 양망하는 믿음(막5:24-34)찬410장

12년간의 만성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많은 의사와 좋은 약을 다 써보았으나 돈만 탕진하고 중해진 절박한 상황에서 완전히 치료된 것이 양망의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5:28). 첫째, 그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의 날개를 주님께 게로 펼쳤습니다. 주님을 주목 만해도 믿음이 발생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오리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양망하는 과정에 생긴 결정체입니다. 성령

이 이 사색의 과정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둘째, 종전에는 주님이 친히 수술적으로 치료받게 하셨으나 여기서는 기도자의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일하셨습니다. 자발적인 겸손한 생각을 그대로 시행하자 즉각 치료되었습니다. 양망의 신앙은 이런 씨앗을 가집니다. 물론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벌써 아셨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양망의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금 위험한 전통(막7:1-13)찬189장

본문은 인간적 전통의 위험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첫째,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립은 에덴동산 때부터 있어온 싸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때 눈은 뜨여 지혜로워졌지만 인본주의적 지혜로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지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역사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온 인류에게 전승되어온 죄의 뿌리였습니다. 인간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하고 자기주의, 자율주

의가 되어버렸습니다(7). 둘째, 유대인의 전통은 말씀의 적용으로 시작됐으나 말씀을 폐하는 죄의 온상이 됐습니다(9). 안식일 성수를 위해 만든 락비의 29개 적용조항이나 손 씻는 의식은 모두 내용보다 적용에 무게를 두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며 심판입니다. 말로는 주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배척하는 외식주의로 나가게 했고 경건의 모양을 띤 불경건이 지배는 비참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식을 경계하십시오.

토 마음의 숨은 죄(막7:14-20)찬194장

예수님이 친히 결과 속을 구분해 마음의 내부를 보여준 본문은 마음의 숨은 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신자의 마음은 영 혹은 영혼으로 지성, 감정, 의지가 머무는 좌소라고 합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밖에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생각은 12가지 성향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그리고 우매함을 가집니다. 하나가 열들로 새끼를 치며 열들이 또 다른

무수한 죄와 죄책과 사망의 새끼를 치듯이 죄악의 승법번식이 일어납니다. 둘째, 그 특징은 음란(불신실)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음행으로 보고 이 세대를 음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본질로 여기서 모든 죄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시1:3). 그 길로 갑시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4)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성안드레교회 (St. Andrew's Church)

전설에 의하면 AD 1세기에 안드레(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가 이곳을 방문했다가 이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이곳에 귀한 그리스도의 도시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1086년에 최초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래 여러 차례 파괴와 복원을 반복했지요.

성안드레교회는 외부장식이 뛰어난 교회로 참 예뻐합니다. 키예프에서는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아주 예뻐합니다. 중앙의 큰 돔은 높이가 60m 정도 되고 이곳을 중심

하지 않은데, 초대 교회처럼 회중을 위한 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회중 의자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의자가 놓인 것은 그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현지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독립광장

키예프의 중심가인 크레차티크 거리에는 높은 독립기념탑과 아름다운 분수가 있습니다. 이 광장을 독립(마이단 네잘레즈노스티-Maidan Nezalezhnosti)광장이라 부르는데 소련시대에는 소비에트광장으로 불렀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 키예프는 독립국의 수도로서 새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중심가 트레샤티크 거리와 독립광장(Maidan Nezalezhnosti) 주변을 잘 정돈, 보수하고 옛 건물들을 복원하여 고풍스런 옛 유럽에 온 느낌입니다.

광장에는 우크라이나의 기증점(영점)탑이 서 있어 탑 기단에는 중심이 마이단으로 세계 여러 도

이나가 아직 소련에 매여 있을 때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이 광장에 모여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하였답니다. 이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타도하고 친(親)서방 야당 지도자(유첸코)가 정권을 잡게 하는 평화적인 "오렌지 혁명"을 일으키지요. 재선거를 통해 2005년 1월 유첸코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등지고 EU와 NATO가입을 통한 친서방화를 서두르게 됩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어 학자인 허승철 씨가 대사로 가게 됩니다. 그 나라 문화와 언어에 능숙한 허 대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슬한 고려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한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봤습니다. 허 대사의 주선으로 유첸코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배를 맞은 후 그 맛에 반해 배나무 묘목을 여러 그루 가져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민족적 고난을 받았음에도 이들은 개방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잘 쉬고 잘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소련의 붕괴로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로 수렴했지만 이 나라에 드리워진 러시아의 그림자는 여전하다고 할지요. 우크라이나 에너지의 60%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잠시 머물며 느낀 것 역시 잘살아 보기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적음을 봅니다.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외양으로 조용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여도 자존심이 강한 편이지요. 그러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조금만 도움을 주면 곧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와 구원, 말씀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길... 또 그곳에는 우리와 피를 나눈 2-4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국인 우체국에 들어가니 유명 홀에 온 듯 크고 웅장한 샹젤리야 꽃밭이 여러 개 드리워져 있습니다. 독특한 우표도 판매해 우표 수집가들에게는 흥미 있는 곳입니다.

이 광장은 키예프인들의 독립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9년 우크라

조용하고 순종적이지만 자존심 강한 현지인들... 고려인 2-4만명 거주, 친밀감 더해

으로 네 툰위에 청록색의 둥근 지붕위에 십자가가 각각 금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또한 벽면은 밝은 파란색으로 하얀 기둥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이 교회는 바로크 형식으로 된 키예프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임에도 내부의 벽화 색깔 등이 선명합니다.

안드레교회 중심으로 안드레브스카 언덕 복원된 자갈길에는 맑은 갤러리와 기념품 노점상들이 모여 있어요. 비 뒤끝이라 아직은 한산한데 그래도 무명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 간단한 민속공예품들을 펼쳐놓은 곳이 있어 작은 선물로 몇 개 골랐습니다.

키예프의 아름다운 오래 오래 여행자의 마음에 머물 것입니다. 오래된 도시답게 문화 유적들이 가득합니다. 스탈린 시대의 갈색 벽돌 건축물과 정통유럽도시 중세 양과 모양의 돔을 한 슬라브 특유의 매력을 가진 두 얼굴의 도시는 매력적이네요.

키예프 남쪽 크이로이보그 도시에서는 정교회의 외부가 단조롭고 밋밋하던데 들어가 보니 생화와 황금빛 치장으로 여간 화려



대통령궁

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한국 초대교회도 예배당 마루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필요에 의해 예배당 안에 의자가 놓였겠지요. 사실 의자는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오직 랍비들만 의자에 앉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정치권력을 지닌 왕과 귀족들이 들어오면 의자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은 경건합니다.

시의 거리가 표시되어 얼마큼 먼 거리인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독립광장 주위로 우체국과 아름다운 건물들, 유명한 차이코프스키 음악학교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국인 우체국에 들어가니 유명 홀에 온 듯 크고 웅장한 샹젤리야 꽃밭이 여러 개 드리워져 있습니다. 독특한 우표도 판매해 우표 수집가들에게는 흥미 있는 곳입니다. 이 광장은 키예프인들의 독립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89년 우크라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어지러운 세계

세계는 갈수록 어지럽다. 먼저 이번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대낮에 꿈꾸는 자들"(Daydreamer believers)이라는 제목의 논설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비용이 비싸지만 대가는 크다는 최근의 많은 연설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결코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이지 아니라 아주 힘들고 잔인하면서 빨리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중국이 결코 미군이 국경선 코앞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도록 간섭한다고 했다. 그런데 남북한을 비교하는 것이 재미있다.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됐고 억눌렸다. 남한은 부유하고 국제적인 나라이고 자유로운 나라이다. 남한사람의 키가 북한보다 평균 7.5센티 더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국제현실은 싸움을 말리거나 억제하는 "큰 형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큰 형님 노릇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나이저리아에서는 보고하람(의미: 서구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라는 과격 이슬람 무장세력이 276명의 여학생을 납치한지 이미 반달이 넘었지만 정부가 손을 쓰지 않는다고 부모들이 맹렬하게 비난하고 데모를 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이라크 및 시리아 이슬람공화국(ISIS)을 노리는 과격 반무슬림집단이 기독교 신자들 30명 이상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린다.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박해의 소식은 너무 많아서 이제 뉴스의 가치조차 없을 정도이다. 이라크도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두 파의 종파분쟁에 의한 테러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집트 소식

이집트는 5월 26-27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등장한 시시장군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슬림형제단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난 월요일 방송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600명이 넘는 무슬림형제단에게 살형 연도를 결정got고, 국제사회는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충고한다. 현재 16,000명이 구속됐고 금년도 무슬림 형제단 검거과정에서 2500명 이상 사망했다.

"아랍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다." 이 제목은 이코노미스트 4월 19일자(9페이지) "아랍 민주주의: 알제리의 교훈"이라는 기사 서두이다. 아랍혁명이 일어나서 이슬람 국가들이 민주화로 갈 기대에 부풀었지만 도리어 시리아 내전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집트는 "도루묵"이 되어 더 강한 군부가 등장하고 있다. 튀니지아를 제외하고도 22개 아랍국가들은 혁명후 민주화로 나가기보다는 도리어 나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독재만이 대안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집트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알제리는 91년 무슬림형제단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군부가 쿠데타로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집권했다. 쿠데타로 20만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77세의 부테플리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이나 과격 이슬람들은 이슬람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스스로 표명했다. 그대로 아랍 스프링은 아랍국가에 봄이 아닌 도리어 겨울을 가져왔다. 작년도 종교문화연구소는 저서 "아랍의 봄: 봄인가, 겨울인가?"는 아랍 스프링은 도리어 겨울을 가져왔다고 정확하게 예고 하였다.

지금 중동의 기독교 박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나라로 도망하게 하고 있다. 2주전 타임지는 "새로운 엑소더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중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는 교황의 우려를 보도했다.

7세기 시리아에서 신자들은 칼리프 하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세금을 내야했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종과 죽을 둘 중의 하나였다. 지금 시리아 라카 지역의 신자들은 과격반군들에게 650달러를 주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이미 3천명의 신자들이 도망갔다. 남은 자들은 너무나 끔찍한 참변을 당한다. 남은 30만명의 신자들은 독재자 아사드를 지지하면서 연명한다. 1914년 오스만제국 때 전 세계 1/4의 신자가 중동에 있었다. 당시 기독교 인구의 5%였다. 지금은 1%에 불과하다.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 2011년 93,000명의 신자들이 나라를 떠났다. 당시 콥트교회 교황은 이집트 혁명이 아니라 이슬람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관찰이다. 무슬림형제단 회원인 모르시는 노골적으로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이 결코 나라를 리드할 수 없다고 공언하였다. 이라크에서는 후세인 몰락이후 100만명의 신자가 나라를 떠났다.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못 잤으며 일손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한순간 한 시간을 한사람이라도 구조 자가 살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벌써 1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도 날마다 울었고 학생들과 함께 특별 기도회를 하며 통곡했습니다. 학생들은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금했고 조문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나의 기도의 부족이요, 나의 가르침의 부족임을 회개합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어느 누구의 잘못보다도 해방 후부터 잘못된 관행과 사고의 결과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는 나만 출세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한탕주의의 사상이 이단을 키워 "구원파"와 같은 고등사기꾼들을 양산했고 권력자들의 부패가 세월호를 침몰케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잃어버린 자녀들로 인해 모든 국민의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통곡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모두 일어나 험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달아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백성은 출구를 잃어버려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갈라지게하라" 하실 때 "모세가"믿고 바다위로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200만 명의 백성이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너서 참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고 세월호를 삼킨 부조리와 부정의 바다, 잘못된 사고와 관행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전국민에게 기도의 날과 기도의 주간을 선포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회에 긴급예산을 요청할 때 상하 양원은 여야가 없이 대통령이 청원했던 예산보다 더 3배 가까이 증액 통과 했습니다. 이번 세월호의 침몰은 지난간 모든 여야 지도자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나라도 관행과 부조리와 고등 사기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과감하게 국민의 안정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온 국민이 도움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후 가난과 비참한 현실을 뚫고 전진했고 IMF도 신속히 빠져 나왔으며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섰고 대통령님은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고 계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의 깃발을 드십시오. 말없이 응원하며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새나라 건설을 위하여 세월호를 침몰시킨 부정과 관행의 바다를 건너 행복한 나라를 이룩하십시오.

칼빈대학교 총장 김재연 박사
한국 복음주의 신학대학 협의회 회장 김재연 총장
주안의 교회(구 세계비전교회 설립자)
미주복음주의 장로교 총회장(1,2,4,13)
밸리교회협의회회장(전)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전)

* 위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